

## 신라 불교 천신고

###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A Study of Buddhist Devas of Silla

---

저자 (Authors)	김영태 Young Tae Kim
출처 (Source)	<a href="#">불교학보 15</a> , 1978.10, 43-78(36 pages) <a href="#">BUL GYO HAK BO 15</a> , 1978.10, 43-78(3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a>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011">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011</a>
APA Style	김영태 (1978). 신라 불교 천신고. 불교학보, 15, 43-7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2 13:5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新羅 佛教 天神攷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金 煥 泰

1. 天神關係 史例 (1) 新羅 天神信仰의 類形과 그 展開
2. 佛典所說의 天神 (2) 新羅佛教天神의 思想의 特殊性
3. 新羅의 天神信仰과 그 思想의 特性

## 緒 言

우리 人類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하늘은 가장 권위있는 神으로 받들려왔으며, 自然 神 숭배의 原始社會에서 어떤 氏族(人種)이나 어느 地域을 막론하고 天神이 信奉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도 하늘을 모시는 儀式 行事(祭天大會)를 가졌으며, 위대한 인물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보아 始祖와 開國主를 하늘의 아들로 믿었고 따라서 우리 겨레는 스스로 하늘의 자손(天孫)임을 자부하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우리 조상들이 佛教를 받아들이고부터는 그 天神觀도 佛教的인 影響으로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佛教傳來 이전의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天神觀을 뚜렷하게 알만한 자료도 오늘날 보기가 힘들고, 또 처음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던 高句麗나 百濟의 佛教的 天神關係史料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在來固有의 天神觀이 佛教傳來 후에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형태로 展開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그 자세한 것을 알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三國遺事를 통하여 佛教的인 天神關係의 기록들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다. 이에 의하여 佛教에 있어서의 天神觀 및 그에 따른 문제들을 考察할 수가 있기는 하나, 거기에 收錄된 자료들은 모두가 新羅 때의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三國遺事所傳의 자료들을 통하여 新羅代의 佛教天神에 관하여 살펴 볼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新羅佛敎에 있어서의 天神에 관한 現存史料는 비단 三國遺事에 수록되어있는 것만이 그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 밖에 찾아본다면 전연 없는 바는 아니겠으나 여기에서는 우선 遺事 所傳의 것만을 整理하여 新羅의 佛敎天神에 관한 諸問題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小稿에서는 먼저 遺事に 보이는 관계자료들을 한데 모아 時代別로 정리 하여보고, 다음에 佛典所說의 天神에 관한 것을 대강 살펴 본 뒤에, 세번째로 新羅에서의 佛敎天神信仰과 그 思想의 特殊性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 1. 天神關係 史例

新羅에 佛敎가 傳來되고부터 그 末期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걸쳐서 三國遺事に 보이고 있는 하늘(天 또는 天神)에 관한 모든 事例들을 摘出하여 대강 年代(王代)順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 (1) 法興王代(그 以前 포함)

① 三國遺事에서 佛敎적인 하늘에 관계되는 사실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아마도 新羅 제13대 未離王 2年(263)에 新羅로 와서 佛法弘布에 힘썼다는 我道の 故事를 통 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我道가 王의 허락을 얻어 天鏡林(신라 최초의 절인 興輪寺 자리)에다 草屋을 짓고 머물며 佛法을 講演할 때 하늘 꽃이 땅에 떨어졌다(... 編茅葺屋 住而講演 時或天花落地)는 것이다.<sup>1)</sup> 그러나 未離王 2년에 佛敎가 傳來되었다는 것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그 時期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法興王의 以前인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또 遺事에는 桓因(謂帝釋也)<sup>2)</sup>과 天帝<sup>3)</sup> 등 佛敎적인 天神의 名稱 및 用語가 上古의 古朝鮮이나 扶餘諸國(北·東·卒本扶餘)에 이미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들 佛敎의 天神의 呼稱(桓因·帝釋 및 天帝)은 그 後代에 와서 佛敎가 傳來된 뒤에 옛 우리의 天神을 그렇게 佛敎用語로 表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用語는 비록 佛敎의이라 하더라도 그 天神 自體는 佛敎와는 관계없는(佛敎傳來以前의) 우리 겨레의 옛 天神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들 天神이 비록 佛敎의用語로 表記되어 있다고는 하나 佛敎적인 하늘로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② 新羅에 佛法을 최초로 받아들여 그 信仰을 가능케 한 法興王의 14年(527)에 近臣 異次頓이 斬首 당하게 되었을 때 “大聖法王이 佛敎를 일으키고자 身命을 돌아보지 않고 오랜 동안 인연을 지었으니 하늘은 상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에게 두루 보일 것이다”

1) 三國遺事 卷3 興法 3, 阿道基羅條의 按我道本碑云 中. (崔南善編 新訂三國遺事 p.123)

2) 遺事 卷1 紀異 2, 古朝鮮 條.

3) 上同, 北扶餘 條와 東扶餘 條 및 高句麗 條 등.

(大聖法王 欲興佛教 不顧身命 多劫結緣 天垂瑞祥 遍示人庶)라고 하였으며, 또 그가 斬首당하자 하늘(四方)이 캄캄해지고 땅이(六種으로)震動하여 꽃비가 떨어져내렸다(天四黯黪 斜景爲之晦明 地六震動 雨花爲之飄落)는 것이다.<sup>4)</sup>

(2) 眞平王代

① 제26대 白淨(眞平)王은 內帝釋宮(또한 天柱寺라고도 하였음)을 세웠으며 거기에 駕幸하였는데, 그의 即位元年(579)에 天使가 대궐뜰에 내려와서 왕에게

“上皇께서 나에게 이 玉帶를 전해드리라고 시키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서 가지고 온 玉帶를 전해 주었으므로, 眞平王이 그것을 공손하게 받자 天使는 하늘로 올라 갔다. 그 玉帶가 新羅三寶의 하나이며 郊廟大祀에 王들이 모두 그것을 着用하였다는 것이다.<sup>5)</sup>

② 眞平王 9年 甲申<sup>6)</sup>에 竹嶺의 동쪽 百里쯤 되는 곳의 우뚝 솟은 산마루에 四面에다 四方如來를 새기고 紅紗로 감싼 큰 돌 하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王이 그 소문을 듣고 가서 瞻敬하고 그 바위 옆에 절을 짓게하여 大乘寺라 하였으며, 그곳을 德山 또는 四佛山이라 하였다는 것이다.<sup>7)</sup>

③ 또 眞平王 때의 比丘尼 智惠는 仙桃山 神母가 現夢하여 당부한 말에 따라 住處인 安興寺의 佛殿을 수리하고 그 壁上에 五十三佛과 六類聖衆 및 諸天神과 五岳神君을 그렸다는 것이다.<sup>8)</sup>

(3) 善德王代

① 제27대 善德王 5年(636)에 唐으로 갔던 慈藏法師가 그 곳 五臺山에서 文殊菩薩로부터 法을 받았는데 그때 文殊는 慈藏에게

“그대 나라 王은 본시 인도의 刹帝利種 王이므로 東夷共工의 族과는 다르다. 그러나 山川이 험하고 人性이 거칠어서 邪見을 많이 믿으므로 때로는 天神이 禍를 내린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며, 또 慈藏이 그 길로 太和池邊을 지나다가 홀연히 나타난 神人을 만났는데 그 神人(太和池龍神)이 慈藏에게

“皇龍寺의 護法龍은 바로 나의 長子인데 梵王의 命을 받고 그 절을 守護하고 있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sup>9)</sup> 여기서의 梵王은 물론 梵天王을 지칭하는 것이다.

② 또 慈藏傳에는 慈藏이 深山으로 들어가 修行할 때 꿈에 天人이 와서 주는 五戒를 받았으며, 나중에 唐으로 가서 淸涼山(五臺山)의 文殊大聖塑像 앞에서 祈禱하여 眞身

4) 遺事 卷3 興法 3, 原宗興法 厭觸滅身(新訂三國遺事 p.127)

5) 遺事 卷1 紀異 2, 天賜玉帶(上同 p.57)

이 天賜玉帶가 新羅 護國三寶의 하나이며, 國王이 郊廟大祀에 이 玉帶를 착용하였다고 있다.

6) 眞平王 9年(587)은 甲申이 아니고 丁未이며, 眞平王의 甲申年은 그 46年(624)에 해당된다.

7) 遺事 卷3 塔像 4,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前揭書 p.141)

8) 遺事 卷5 感通 7, 仙桃聖母隨喜佛事(前揭書 p.216)

9) 遺事 卷3 塔像 4, 皇龍寺九層塔(前揭, p.137~138)

을 冥感하였는데 그 곳(唐)에서는 帝釋天이 工匠을 데리고 와서 文殊塑像을 彫造하였다고 전해져 있다는 것이며, 그 뒤 歸國한 慈藏은 宮中에서 大乘論을 講하고 皇龍寺에서 菩薩戒本을 7日 7夜 說하였을 때 하늘이 甘澍를 내리고 雲霧와 暗靄가 講堂을 덮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sup>10)</sup>

③ 그리고 善德王 때의 密本法師는 金良圖(文武王 때의 宰相)가 어릴 때에 鬼神病에 걸린 것을 고쳐주었는데, 그 때 병을 앓고 있는 어린 良圖가 보니 四方의 大力神이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는 群鬼를 잡아 가고 다음에 無數한 天神이 나타나 빙들러서서 공손하게 마중하자 곧 密本法師가 왔으며 法師가 經을 열기도 전에 이미 자신(良圖)의 병이 완쾌되었다는 것이다.<sup>11)</sup>

#### (4) 文武王 代

① 제30대 文武王 元年(661)에 沙彌 智通이 山靈의 陰助로 靈鷲山으로 가서 朗智法師을 만났는데 전해 오는 말로는 그 山主(山靈)가 辯才天女(...殆山靈之陰助也 傳云山主乃辯才天女)<sup>12)</sup>라는 것이다.

② 그리고 文武王은 그 5年(665) 8월에 친히 大兵을 거느리고 熊津城으로 가서 假王 扶餘隆과 만나 作壇하고 白馬를 잡아 맹세하여 天神과 山川의 靈에 먼저 제사(刑白馬而盟先祀天神及山川之靈)하였다고 있으며,<sup>13)</sup> 또 文武王은 唐兵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明朗法師의 말에 따라 狼山 남쪽 神遊林에 四天王寺를 세우고 文豆婁(神印)道場을 開設하게 하였다는 것이다.<sup>14)</sup>

③ 그리고 또 文武王 元年(661)에 唐으로 갔던 義湘은 그 곳 終南山 至相寺의 智儼和尚 門下에서 修學하고 있을 때 마침 가까운 절에 살던 道宣律師의 天供 초청을 받고 갔다가 道宣이 天帝로부터 恭敬받고 있음을 알고는 그에게,

“帝釋宮에 佛牙가 있다는 말을 일찌기들은 일이 있는데, 우리들을 위해 그것을 가져 오게 하여 人間의 福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道宣이 밥을 가져오는 天使더러 上帝에게 그 뜻을 전하게 해서 天帝로부터 7日(初利天의 7日)간의 기한부로 佛牙를 보내어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으며,<sup>15)</sup> 義湘이 歸國(671)하여 洛山の 海邊窟內에 觀音眞身이 常住한다는 말을 듣고 眞身을 親見코자 7日을 齋戒하여 龍天八部의 안내로 巖穴에 들어 갔다고 있다.<sup>16)</sup>

④ 또 文武王 때의 沙門 廣德이 往生하였을 때 구름 밖에서 天樂聲이 들리고 光明이

10) 遺事 卷4 義解 5, 慈藏定律(前掲, p.192~193)

11) 遺事 卷5 神呪 6, 密本摧邪(上同, p.211)

12) 上同 避隱 8, 朗智乘雲 普賢樹(上同, p.229)

13) 遺事 卷1 紀異 2, 太宗春秋公(上同, p.66)

14) 遺事 卷2, 文虎王 法敏(上同, p.72)

15) 遺事 卷3 塔像 4, 前後所將舍利(上同, p.148~149)

16) 上同, 洛山二大聖(上同, p.159).

17) 上同 卷5 感通 7, 廣德 嚴莊(上同, p.219)

땅에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다.<sup>17)</sup>

(5) 神文王 代

① 제31대 神文王은 即位(681)하여 그 父王(文武王)이 東海邊에 세우다가 완성시키지 못한 感恩寺를 완성시켰는데, 그 이듬해(682) 5월에 感恩寺 앞 바다에서 父王(文武王)이 護國龍이 되고 金庾信이 三十三天의 한 아들(金庾信乃三十三天之一子)로서 다시 天神이 되어 (庾信復爲天神) 文武王의 海中大龍과 二聖이 한 마음으로 내어 놓은 無價의 大寶인 竹笛(萬波息笛)을 얻고 天下를 太平하게 하였다는 것이다.<sup>18)</sup>

② 그리고 神文王 때 唐의 高宗이 新羅에 使를 보내어

“朕의 聖考께서 賢臣 魏徵 李淳風 등을 얻어 協心同德으로 天下를 통일하였으므로 太宗皇帝라 하였거늘, 그대 新羅는 海外 小國이면서 太宗의 號를 붙여 天子의 이름을 僭稱하였으니 참으로 不忠하다. 빨리 그 號를 고치도록 하라.”고 하였으므로, 神文王은

“新羅가 비록 小國이지만 聖臣 金庾信을 얻어 三國을 통일하였으므로 太宗이라 封號하였나이다.”

라는 表를 올렸는데, 이 表를 본 高宗은 자신의 太子 때에 하늘에서

“三十三天의 한 사람이 降生하여 新羅의 金庾信이 되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일(有天唱空云 三十三天之一人降於新羅爲庾信)이 문득 생각나서 그 때 적어두었던 글을 끄내어 살펴보고는 驚懼함을 금치못하였으며, 다시 使를 보내어 太宗의 號를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이다.<sup>19)</sup> 그러나 三國史記에서는 神文王의 12年(692)에 唐 中宗이 使를 보내어 新羅의 先王 春秋를 太宗이라 한 것은 唐太宗의 廟號를 僭越함이 심한 일이 되므로 급히 改稱하라고 하였을 때, 王은 群臣과 의논하여

“小國의 先王 春秋는 賢德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良臣 金庾信을 얻어 三韓을 통일하고 그 功業이 컸으므로 그렇게 追尊의 號를 올린 것이 聖祖의 號에 相犯됨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지금 敎勅을 들으니 恐懼함을 이기지 못하나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후 다시 아무런 敎勅이 없었다<sup>20)</sup>라고만 되어있어서, 金庾信이 三十三天의 一人으로 下降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改號하라는 말이 없었다는 言及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③ 또 神文王이 등창을 앓아 고생하다가 惠通의 呪力으로 낫게 되었는데, 그 때 惠通은 王에게,

“陛下께서 옛날 宰官의 몸이었을 때 信忠이라는 하인에게 잘못 판결하여 그의 원한을 사게 되어 그 報로서 지금 심한 등창이 났던 것이므로, 그를 위해 절을 짓고 그의 명복을 빌어주어 그 怨報를 풀어야 합니다.”

18) 遺事 卷2 紀異 2, 萬波息笛 條.

19) 遺事 卷1 紀異 2, 太宗春秋公 條의 末尾(前揭 三國遺事 p.69).

20)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8, 神文王 12年 條.

라고 하였으므로, 王은 절을 지어 信忠奉聖寺라 하였는데 그 절이 완성되자 공중에서 “王의 創寺로 인하여 꿈을 벗어나 하늘에 태어나게 되었으므로 원한은 이제 풀리었다.”(因王創寺 脫苦生天 怨己解矣)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sup>21)</sup>

④ 그리고 또 神文王 代에 開士(化主僧) 漸開는 興輪寺에서 六輪會를 設하려고 勸化하였는데, 그는 慶祖라는 貧女(金大城의 前生母)가 일해주고 있는 주인집인 福安家에 와서 施物(布50疋)을 받고는 呪願하기를

“施主님의 훌륭한 布施에 天神이 항상 옹호할 것이며(檀越好布施 天神常護持), 베푸는 한가지에 만갑절(萬倍)을 얻게되고 壽命이 길며 安樂을 누릴지다.”

라고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sup>22)</sup>

#### (6) 景德王 代(附 寶川太子)

① 義湘法師의 門下 10大德 중의 하나인 表訓은 일찌기 佛國寺에 住하였는데 항상 天宮에 往來하였다는 것이다.<sup>23)</sup>

② 제 35대 景德王은 아들이 없었으므로 하루는 表訓大德을 불러서,

“나는 後嗣가 없으니 원컨대 大德께서 上帝에게 청하여 아들 하나를 낳게 해주시오.”라고 하였으므로, 表訓은 하늘로 올라가 天帝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돌아와서 王에게 아뢰기를,

“天帝께서는 女子를 구한다면 곧 가능하지만은 男子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 王은 女子를 남자로 되게 하여주기를 원하였으므로 表訓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청하매, 天帝는

“여자로 태어날 것을 남자로 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하고는 다시 表訓에게,

“하늘과 사람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지금 스님은 이웃 마을 왕래하듯 하늘을 오르내리면서 天機를 漏洩하니, 이제부터는 다시 왕래하지 말도록 하라.”(天與人不可亂 今師往來如隣里 漏洩天機 今後宜更不通)

고 하였다. 表訓이 돌아와 왕에게 보고 하니 王은,

“비록 나라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아들을 얻어 後嗣가 끊이지 않는다면 족하다.”

라고 하였으며, 과연 太子를 낳았으니 그가 惠恭王이 되었는데 나라가 어지러웠고 종래는 臣下로부터 弑害를 당하였으며, 表訓의 뒤로는 新羅에 聖人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이다.<sup>24)</sup>

21) 遺事 卷 5 神呪 6, 惠通降龍(前揭 遺事 p.214).

22) 上同 孝善 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前揭書 p.239).

23) 遺事 卷 4 義解5, 義湘傳教條 “訓曾住佛國寺常往來天宮”(上同, p.199)

24) 遺事 卷 2 紀異 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上同, p.81)

③ 景德王 19年(760) 4月 초하루에 두 해(日)가 함께 나타나 여러 날이 되어도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王은 日官의 말에 따라 緣僧을 청해 散花功德을 짓기로 하였는데, 그 때 緣僧이 된 月明이 開壇作啓에 兜率歌를 지어 불러 兜率天의 彌勒菩薩에게 散花功德을 지음으로써 곧 日怪가 소멸되었으며, 彌勒菩薩은 童子의 몸을 나타내 應感하였다고 있다.<sup>25)</sup>

④ 그리고 景德王 代에 彌勒像 앞에서 戒法을 勤求하던 眞表는 日夜勤修 扣石懺悔로 倍加精進하여 3,7日(21日)이 차는 날 天眼을 얻고 兜率天衆이 내려오는 모양을 보았는데(即得天眼 見兜率天衆來儀之相), 彌勒(慈氏)은 眞表에게 두 簡子(姓)를 주면서

“이 두 簡子는 나의 手指骨인데 始覺과 本覺을 비유한 것으로 九者라고 쓰인 簡子는 法爾이며 八者라고 쓰인 簡子는 新薰成佛種子이니 이로서 마땅히 果報를 알 것이다. 그때는 이 몸을 버리고(死後에) 大國王의 몸을 받은 다음에 兜率(天)에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그(眞表)가 金山寺 重創을 완성시켰을 때 다시 彌勒이 兜率天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戒法을 주는 感應을 받았으므로(復感慈氏從兜率駕雲而下與師受戒法) 그는 彌勒丈六像을 鑄成케하고 또 金堂의 南壁에 彌勒이 下降하여 授戒하는 威儀의 相을 그리게 하였다는 것이다.<sup>26)</sup>

⑤ 또 같은 景德王 代에 康州(지금 晉州)의 善士 阿干貴珍家에 婢로 있던 郁面이 念佛精進하다가 天樂소리가 서쪽에서 오자 그는 몸을 솟구쳐 屋樑을 뚫고 나가 眞身이 蓮臺에 앉아 大光明을 놓으면서 西往하였는데 天樂소리가 空中에 울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며,<sup>27)</sup> 또 歙良州(지금 梁山)의 東北 20리쯤에 있는 布川山石窟에서 彌陀를 念修하던 다섯 比丘가 聖衆의 來迎에 모두 蓮臺에 앉아 공중에 떠서 가다가 通度寺門外에 留連하여 天樂을 間奏하며 說法하다 西往하였다고 있다.<sup>28)</sup>

⑥ 그리고 景德王 10年(751)에 始創하였다는 佛國寺를 세운 大相 金大城이 石窟庵의 石佛을 彫刻하게 하였을 때 龕蓋로 쓸 大石이 세 조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는 분하게 여기다가 잠을 잤는데 밤중에 天神이 來降하여 잠쪽같이 전처럼 만들어놓았으므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南嶺으로 가서 香木으로 天神에 공양하였다는 것인데, 그가 國宰 金文亮(그의 父)家에 태어날 때 하늘에서 외치기를(天唱云)

“牟梁里의 大城이란 아이가 그대 집에 託生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모두 놀라 알아보니 과연 大城이란 아이가 그날 죽었으며 그로부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손에 大城이란 두 글자를 새긴 金簡子를 쥐고 있었으므로

25) 遺事 卷5 感通 7, 月明師兜率歌(上同, p. 222~223).

26) 遺事 卷4 義解 5, 關東楓岳鉢淵巖石記(上同, p. 203).

27) 遺事 卷5 感通 7, 郁面婢念佛西昇(上同, p. 218).

28) 上同 遊歷 8, 布川山 五比丘 景德王代(上同, p. 237).

이름을 大城이라 하였다는 것이다.<sup>29)</sup>

⑦ 景德王代라는 明記도 없고 그 時代가 확실치는 않으나<sup>30)</sup> 新羅 淨神大王(未詳)의 太子였던 寶川(또는 寶叱徒)이 五臺山에 들어와 50餘年을 修道하였는데, 切利天神이 3時에 聽法하고 淨居天衆이 茶를 다려 공양하였다(修眞五十年 切利天神三時聽法 淨居天衆烹茶供獻)는 것이 보이고 있다.<sup>31)</sup>

### (7) 元聖王 代

① 제38대 元聖王이 高僧 緣會(靈鷲寺隱居)를 國師로 삼으려고 하였을 때 그것을 피해 달아나던 緣會가 처음에 한 老叟(文殊現身)를 만나고 다시 시냇가에서 한 老婆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노파가 辯才天女였다는 것이다.<sup>32)</sup>

② 또 元聖王 代의 金現은 興輪寺의 殿塔돌이(福會)에서 알게 된 처녀(실은 虎女)를 따라갔다가 그 虎女의 세 오빠 호랑이가 산 목숨들을 많이 해쳤으므로 하늘에서

“너희들이 物命을 해치기를 너무 즐겨하므로 벌을 내려 徵惡코자 한다.”

라고 외치는 소리(有天唱)를 들었으며, 또 虎女가 金現에게 이야기한 말 중에

“세 오빠의 악행을 하늘이 미워하여 (天旣厭之) 一家에 재앙을 내리려 하므로 내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 보이고 있다.<sup>33)</sup>

### (8) 哀莊王 및 眞聖王 代

① 제40대 哀莊王 때의 沙門 正秀는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 저녁에 길 바닥에서 아기를 낳고 凍死지경에 있는 한 乞女를 보고는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또 품에 품어주어 살아가게 해주었는데, 그날 밤중에

“皇龍寺沙門 正秀를 王師로 封하라”

라고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有天唱)가 王庭에서 들렸으며, 王이 그 사실을 알고는 國師로 冊封하였다는 것이다.<sup>34)</sup>

② 제51대 眞聖女王 때에 王居仁이 陀羅尼隱語를 지었다는 누명을 쓰고 獄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때 居仁이

燕丹泣血虹穿日 鄒衍含悲夏落霜

29) 上同 孝善 9, 大城孝二世父母(上同, p. 239~240).

30) 寶川太子의 아우 孝明太子가 王位에 오른 뒤에 神龍元年(705) 3월에 百官을 거느리고 五臺山에 이르러 眞如院을 改創하였다고 있으니, 神龍元年是 聖德王 4년에 해당되므로 孝明王이 聖德王임을 알 수는 있겠으나 그 내용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孝明을 聖德王이라고 確定지을 수도 없는 문제가 없지않기 때문에 그 精確한 年代를 알 수가 없고 또 寶川太子가 50年을 修眞하였다고 있으므로 그 時代를 대증잡가가 어려워 前의상 景德王代에다 걸붙여 보았다.

31) 遺事 卷3 塔像 4, 臺山五萬眞身(前揭書 p. 168).

32) 遺事 卷5 避隱 8, 緣會逃名 文殊貼 條.

33) 上同 感通 7, 金現感虎 條.

34) 上同, 正秀師求水女 條.

35) 遺事 卷2 紀異 2, 眞聖女大王 居施知 條.

今我失途還似舊 皇天何事不垂祥

라는 詩를 지어 하늘에 호소하였더니 하늘이 그 獄에 벼락을 쳐서 居仁으로 하여금 석방되게 하였다는 것이다.<sup>35)</sup>

(9) 景明王 代

① 제 54대 景明王 때에 興輪寺의 南門과 左右 廊廡가 火災를 입었으므로 그것을 重修하기 위하여 靖和와 弘繼라는 두 僧侶가 募金을 하였는데, 景明王 5年(921) 5月 5日에 帝釋이 내려와 興輪寺의 左經樓에 10日을 머무르니(帝釋降于寺之左經樓留旬日) 殿塔과 草樹 土石이 모두 異香을 발하였고 五色구름이 절을 덮었으며 南池의 魚龍이 기뻐 뛰놀았으므로, 國人들이 모여와 보고 未曾有의 일이라 찬탄하며 玉帛과 梁稻를 시주하니 산처럼 쌓이게 되었다. 또 工匠들이 스스로 모여와서 몇일 사이에 工事가 완성되자 天帝는 하늘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두 스님이

“天帝께서 天宮으로 돌아가시려 하신다면 청하옵건대 聖容을 그려서 정성껏 供養하여 天恩에 보답하고 또한 眞影을 보존하므로써 이 下方을 永鎮케 하옵소서.”

라고 말하니, 天帝는

“나의 願力이 普賢菩薩의 遍垂玄化보다 못하니 普賢菩薩을 그려서 정성껏 공양을 올려 瞋심이 없도록 하라.”(帝曰 我之願力 不如彼普賢菩薩遍垂玄化 畫次菩薩虔設供養而不廢宜矣)

고 하였으므로, 두 스님이 그 말을 좃아 壁間에 普賢菩薩을 그려 모셨다는 것이다.<sup>36)</sup>

② 新羅 末에 高麗 太祖의 존경을 받았던 雲門寺 開山祖 寶壤和尚이 中國에서 돌아오는 도중 西海 龍宮을 들렀다가 데리고 온 龍子 璃目이 어느 가뭄이 심한 해에 和尚의 명으로 비를 내렸다가 天帝의 벌을 받게 되었는데 天使가 벌을 주러 내려왔을 때 和尚이 璃目を 숨기고 뜰앞의 배나무를 가리키자 天使는 그것을 璃目으로 알고 벼락을 내리치고 하늘로 올라 갔다는 것이다.<sup>37)</sup>

(10) 年代未詳

① 雞林의 北岳 金剛嶺에 있는 栢栗寺에는 大悲(觀音)像이 하나 있었는데, 항간에 전하는 말로는 이 大聖(觀音像)이 일찌기 忉利天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法堂에 들어갈 때 밝은 돌 위에 지금까지도 그 발자국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이다. 혹은 國仙 夫禮郎을 求해 올 때(孝昭王 2年·693)생긴 자국이라고도 한다.<sup>38)</sup>

② 包山(玄風 琵琶山)의 岳神은 이름이 靜聖天王인데, 일찌기 迦葉佛의 付囑을 받고 이 山中에 一千人이 出世할때까지 있다가 다른 報를 받아가겠다고 誓願을 하였다는 것

36) 遺事 卷3 塔像 4, 興輪寺壁畫普賢 條.

37) 遺事 卷4 義解 5, 寶壤梨木 條.

38) 遺事 卷3 塔像 4, 栢栗寺 條.

이다.<sup>39)</sup>

③ 慶州 南山의 南에 高位山이라고도 하는 한 봉우리가 있으며 그 남쪽에 天龍寺(또는 高寺)라는 절이 있는데, 三韓集에는 ‘雞林土 內에 客水 2條와 逆水 1條가 있는데 그 逆水와 客水의 두 근원에서 天災를 鎮壓하지 않으면 곧 天龍이 覆沒하는 재앙을 이르게 한다’고 있으며, 俗傳에는 逆水의 근원이 天龍寺에 이룬다고 하였다는 것이다.<sup>40)</sup>

## 2. 佛典所說의 天神

이상에서 우리는 三國遺事に 보이고 있는 天(神) 관계의 史例들을 뽑아서 대충 整理해 보았다.

그와 같은 史例를 통하여 新羅 佛敎에 있어서의 天神에 대한 문제들을 考察하려는 것이므로, 여기에 우선 佛敎經典에서 볼 수 있는 天神에 관한 것을 대강 알아 보기로 한다.

### (1) 善人 上生の 天

佛敎에서 말하는 하늘 deva 提婆(梵·巴語 같음)는 본래 ‘빛을 발하다’(放光明)의 뜻인 語根 div에서 온 名詞로서, 天上의 사람 또는 거룩한 이(存在) 등의 意義를 가졌으며 보통으로 神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리고 또 六趣(六道)의 하나로서 天趣 deva-gati라고 하며, 十界의 하나로서 天界 deva loka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늘(天)은 하늘 사람(天人·神) 또는 그들이 住居하는 勝妙한 세계인 하늘 나라(天上世界)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天)이란 본래는 하늘사람(天人·神)을 뜻하는 말(deva)이었으나, 하늘 나라(天界)를 가리키는(deva-loka) 뜻으로도 쓰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漢譯佛典에서의 天은 하늘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쓰고 또 하늘 나라를 지칭할 경우에도 썼을 뿐아니라, 그 兩者를 함께 표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大涅槃經<sup>41)</sup>에는 하늘에 대하여

“天上에는 낮이 길고 밤이 짧기 때문에 하늘을 낮(晝)이라고 이름하며, 항상 快樂을 받으므로 하늘을 無愁惱라 이름하며, 능히 어둠(黑闇)을 깨뜨려 크게 밝게하므로 하늘을 燈明이라 이름하며, 또한 능히 惡業의 黑闇을 破하여 善業을 얻어서 天上에 나므로 그와 같이 이름하며, 또 吉祥이기 때문에 하늘을 吉이라 이름하며, 또 光明이 있으므로 하늘을 日이라 이름한다. 이러한 義가 있으므로써 이름하여 하늘이라 한다.”

라고 說하여 있으며, 또 立世阿毘曇論<sup>42)</sup>에도

39) 遺事 卷5 避隱 8, 包山二聖 條.

40) 遺事 卷3 塔像 4, 天龍寺 條.

41) 大般涅槃經 卷第18 梵行品 第8之4(大正新修大藏經 第12卷 p.469 中·下).

42) 佛說立世阿毘曇論 卷第6 云河品 第20(新修藏經 第32卷 p.198 上)

“提婆(天)란 善行의 이름이며, 提婆를 光明이라 이름하며, 提婆를 聖道라 하고, 意樂이라 하며, 上道라 이름한다.”

라고 하여있다. 그리고 大毘婆沙論<sup>43)</sup>에는

“諸趣 중에서 이 趣가 最勝 最樂 最善 最妙 最高이므로 天趣라 이름한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佛敎에서의 하늘(天)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그 하늘 나라(天界)에 사는 사람(天人)들이 어떻게해서 그곳에 태어났는가, 즉 地上 人間의 어떤 사람들이 하늘(天上)에 태어날(上生할) 수 있는가 하는 것부터 經典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佛爲勝光天子說王法經’<sup>44)</sup>에는  
橋薩羅國의 勝光王이 釋尊에게

“現世에 항상 安樂을 누리고 壽命이 다한 뒤에는 天上에 태어날 수 있는 國主의 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佛陀는 勝光王에게

“惡法을 遠離하고 善法을 닦아 행하는 자는 現世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으며, 목숨이 다한 뒤에는 天上에 태어날 수가 있다.”

라고 하였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釋尊 當時의 大薩遮尼乾子가 鬱闍延城의 嚴熾王에게, 國王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자상하고도 장황하게 說하고는

“大王이여, 이와 같은 善行의 王은 수명이 다한 때에 마땅히 天上에 태어나서 그 하늘 境界의 모든 妙樂을 받게 될 것입니다.”(如是善行王 若命終時 當生天上受彼諸天妙境界樂)라고 하였다는 것이다.<sup>45)</sup>

‘諸法集要經’<sup>46)</sup>에서도

“때 맞추어 賦稅를 과하고 正法에 의해 受用하여 貪心이 없는 王은 夜摩天主가 될 것이며, 淸淨하여 偏黨이 없고 冤親想이 없어서 마음이 平等하고, 正法으로 다스리고 모든 善을 닦아 행하는 王은 반드시 天主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金光明最勝王經”<sup>47)</sup>에도

“言提婆者善行之名 因善行故於此道生 復說提婆名曰光明 恒有光故 又提婆者名曰聖道 又提婆者名曰意樂 又提婆者名曰上道 又提婆者應修應長一切善業 以是義故名曰提婆”

43) 大毘婆沙論 卷第172 定蘊 第7中 攝納息 第3之7(新修藏 第27卷 p. 868上)

44) 佛爲勝光天子說王法經(新修藏 第15卷 p. 125 中)

45) 大薩遮尼乾子所說經 卷第5 王論品 第5之3(新修藏 第9卷 p. 338 下).

46) 諸法集要經 卷第10 王者治國品 第35(新修藏 第17卷 p. 515下~516上).

47) 金光明最勝王經 卷第8 王法正論品 第20(新修藏 第16卷 p. 442 中·下 및 p. 443 中).

“諸非法을 除滅하여 惡業이 나지 않도록하고 有情에게 善을 닦도록 가르쳐서 天上에 태어나게 한다.”

“사람이 善行을 닦는다면 반드시 天上에 나게 된다.”(若人修善行 當得生天上)라고 하여 있다.

그리고 ‘增壹阿含經’<sup>48)</sup>에는

“比丘衆도 또한 이와 같아서 10法을 成就하게 되면 팔을 굽혔다가 펴는 만큼의 잠간 동안에 곧 天上에 나게 된다. 열가지란, 첫째 그 수명이 다하여 善處의 天上에 나는 法은 比丘가 禁戒를 奉持하고 戒德을 具足하여 正法을 犯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比丘가 如來所에서 恭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셋째는 法報에 順從하여 하나도 犯하는 바가 없는 것, 넷째는 聖衆을 公경하게 받들어 懈惰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 다섯째는 少欲으로 知足하고 利養에 탐착하지 않는 것, 여섯째는 스스로 뜻대로 하지 않고 항상 法戒를 따르는 것, 일곱째는 事務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坐禪을 즐기는 것, 여덟째는 閑靜한 곳을 좋아하고 복잡한 사람들 속에 있지 않는 것, 아홉째는 惡知識과 從事하지 않고 항상 善知識과 더불어 일을 하는 것, 열째는 항상 梵行을 닦아 惡法을 멀리하여 學義를 多聞하고 次叙를 잃지 않는 것이니, 이와 같이 比丘가 10法을 成就하게 되면 팔을 굽혀서 펴는 잠간 동안의 사이에 善處의 天上에 태어나게 된다.”

라고 하여, 比丘의 生天에 대하여 說하고 있다.<sup>49)</sup>

‘善生經’에도

“四方의 惡과 不善業의 垢(垢)를 여의고 現實의 事象을 恭敬尊重하면 肉身의 생명이 다하여 반드시 善處에 이르러 天中에 上生한다.”(離四方惡不善業垢 彼於現法可敬可重身壞命終必至善處上生天中)

라고 하였으며, ‘大涅槃經’<sup>50)</sup>에서도

“諸衆生이 善業을 닦게 되면 命이 다하여 天上人中에 태어나게 된다.”

라고 하여 있다.

또 ‘正法念處經’<sup>51)</sup>에는

“天帝釋이 諸天에게 말하기를, 善業을 지었기 때문에 이 天中에 태어났으므로 그 業이 다하면 곧 여기에서 물러나게 된다.”

라고 하여있어서, 天上의 사람들이 善業에 의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天帝釋의 말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例學는 浩瀚한 大藏經 가운데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많은 事

48) 增壹阿含經 卷第42 結禁品 第46 (7經)(新修藏 第2卷 p.778 上·中).

49) 中阿含經 卷第33 大品 善生經 第19(新修藏 第1卷 p.639 中).

50) 大般涅槃經 卷第16 梵行品 第8之2(新修藏 第12卷 p.462 中).

51) 正法念處經 卷第26 觀天品 第6之5(新修藏 第17卷 p.148 中).

例 중에서 대충 추려 본 이상의 몇가지 단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修善正法の 國王과 善修戒法の 比丘와 善業의 衆生이 天上의 善處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撰集百緣經<sup>52)</sup>과 雜寶藏經<sup>53)</sup>에는 生天의 緣起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收錄되어 있는데, 撰集百緣經에는 ‘月光兒生天緣’ ‘採華供養佛得生天緣’ 등 다섯가지의 生天緣說話가 보이고 있으나 실은 題名에 生天緣이라고 되어있지 않은 것 가운데에도 生天의 緣起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雜寶藏經에는 ‘天女受持八戒齋生天緣’ ‘天女本以然燈供養生天緣’ ‘長者夫婦造作浮圖生天緣’ 등 生天緣의 題名이 붙은 것만도 27種이나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물론 生天緣이라고 하여있지 않은 항목중에 生天의 緣起가 많이 說해져 있다. 이들 生天緣 가운데에는 사람만이 아니고 물소와 기러기와 새같은 畜生도 生天하였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sup>54)</sup>

지금까지 보아온 것을 통하여 우리는 善業衆生이 上生하는 곳이 하늘이며, 하늘 나라(天界)사람들은 善業을 닦은 인연으로 태어났고 또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하늘사람(天人·神)들은 善人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 본다.

## (2) 天의 種類

이제 우리는 善業衆生이 上生하는 곳이 하늘이며,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는 善人들이 살고있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佛所行讚<sup>55)</sup>에

仙王族大仙이 菩提樹下에서  
 建立堅固誓하고 要成解脫道하니  
 鬼龍諸天衆이 悉皆大歡喜이나  
 法怨魔天王이 獨憂而不悅하여  
 五欲自在王이 具諸戰鬪藝하고  
 憎嫉解脫者하니 故名爲波旬이니라

라고 하여있는 것과 같은 내용등을 통하여서, 天神(天人)중에서도 解脫者를 憎嫉하는 法怨魔天王인 波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늘(天界)에는 善業衆生만이 태어나 살고있는 것이 아니고, 正法을 미워하며 解脫 正覺者를 시기하고 싫어하는 魔天王(神)도 살고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하늘(天人 및 天界)의 性質과 內面을 알기 위하여 佛典을 통해 볼 수 있

52) 10卷으로 된 撰集百緣經은 吳의 支謙이 譯하였다. (新修藏 第4卷 p.203~256)

53) 元魏 吉迦夜와 曇曜의 共譯인 雜寶藏經도 全 10卷이다. (新修藏 第4卷 p.447~499).

54) 撰集百緣經 卷第6 佛度水牛生天緣. 雜寶藏經 卷第8 五百白鴈聽法生天緣. 賢愚經 卷第12 烏闍比丘法生天品. 上同 卷第13 五百鴈聞佛法生天品 등.

55) 佛所行讚 卷第3 破魔品 第13(新修藏 第4卷 p.25 上).

는 하늘의 種類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俱舍論<sup>56)</sup>에 의하면

欲界에 ①四大王衆天 ②三十三天 ③夜摩天 ④覩史多天 ⑤樂變化天 ⑥他化自在天의 6 欲天이 있고, 색계에는 3 靜慮處에 各各 3 處가 있고 第4 靜慮處에 8 處가 있으니 第1 靜慮處에 ①梵衆天 ②梵輔天 ③大梵天, 第2 靜慮處에 ①少光天 ②無量光天 ③極光淨天, 第3 靜慮處에 ①少淨天 ②無量淨天 ③遍淨天 등이 있고, 第4 靜慮處에 ①無雲天 ②福生天 ③廣果天 ④無煩天 ⑤無熱天 ⑥善現天 ⑦善見天 ⑧色究竟天이 있어서 色界 17天이 있으며, 無色界에는 ①空無邊處 ②識無邊處 ③無所有處 ④非想非非想處의 4 處가 있으므로, 欲·色·無色の 三界에 모두 27天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三界 27天을 보이고 있는 論典은 俱舍論 외에도 數種<sup>57)</sup>이 있으며, 佛說 經典 으로는 法乘義決定經<sup>58)</sup> 등이 있다.

決定義經<sup>59)</sup>과 立世阿毘曇論<sup>60)</sup> 및 天台四教儀<sup>61)</sup> 등에는 28天을 보이고 있는데, 決定義經에 있는 三界 28天은 다음과 같다.

天趣란 欲界에 六天이 있으니 四王天·忉利天·夜摩天·兜率天·化樂天·他化自在天 色有에 18天이 있으니 梵衆天·梵輔天·大梵天·光天·無量光天·光音天·淨天·無量淨天·遍淨天·無雲天·福生天·廣果天·無想天·無煩天·無熱天·善現天·善見天·色究竟天이며, 無色有에 4 種天이 있으니 空無邊處天·識無邊處天·無所有處天·非想非非想處天이다. 특히 天台四教儀에서는 色界 18天을 四禪으로 나누어 初禪 3天(梵衆·梵輔·大梵), 二禪 3天(少光·無量光·光音), 三禪 3天(少淨·無量淨·遍淨), 四禪 9天(無雲·福生·廣果·無想·無煩·無熱·善見·善現·色究竟)으로 하여 있다.

또 大品般若經<sup>62)</sup>과 大樓炭經<sup>63)</sup> 등에는 31天名을 보이고 있다. 大品般若經에 있는 天名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四天王天, 三十三天, 夜摩天, 兜率陀天, 化樂天, 他化自在天, 梵身天, 梵輔天, 梵衆天, 大梵天, 光天, 少光天, 無量光天, 光音天, 淨天, 少淨天, 無量淨天, 遍淨天, 阿那婆迦天, 得福天, 廣果天, 無想天, 阿浮訶那天, 不熱天, 快見天, 妙見天, 阿迦尼吒天, 虛空無邊處天, 識無邊處天, 無所有處天, 非有想非無想處天.

56) 阿毘達磨俱舍論 卷第8 分別世品 第3之1(新修藏 第29卷 p. 41 上).

57) 阿毘曇心論 卷第4 契經品(新修藏 第28卷 p. 826 中).

阿毘曇心論經 卷第5 修多羅品(同上, p. 860 上).

阿毘曇甘露味論 卷上 界道品(同上, p. 966 下). 및 彰所知論 卷上(新修藏 第32卷 所收) 등.

58) 佛說法乘義決定經 卷上(新修藏 第17卷 p. 654 下~655 上).

59) 佛說決定義經(同上, p. 651 中).

60) 立世阿毘曇論 卷第6 云何品(新修藏 第32卷 p. 198 中·下).

61) 天台四教儀(新修藏 第46卷 p. 776 中).

62) 摩訶般若波羅密經 卷第12 無作品 第43(新修藏 第8卷 p. 310 下~331 上).

63) 大樓炭經 卷第4 忉利天品 第9(新修藏 第1卷 p. 299 上·中).

그리고 舊華嚴經<sup>64)</sup>에는 欲·色 2 界의 28 天名을 보이고 있어서, 無色界의 4 處를 더한다면 모두 32 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長阿含經<sup>65)</sup> 起世經<sup>66)</sup> 起世因本經<sup>67)</sup> 등에는 33 天을 보이고 있는데, 長阿含(世記經)에 있는 天名은 다음과 같다.

四天王, 忉利天, 焰摩天, 兜率天, 化自在天, 他化自在天, 魔天(以上 欲界 7 天), 梵身天, 梵輔天, 梵衆天, 大梵天, 光天, 少光天, 無量光天, 光音天, 淨天, 少淨天, 無量淨天, 遍淨天, 嚴飾天, 小嚴飾天, 無量嚴飾天, 嚴飾果實天, 無想天, 無造天, 無熱天, 善見天, 大善見天, 阿迦尼吒天(以上 色界 22 天), 空智天, 識智天, 無所有智天, 有想無想智天(以上 無色界 4 天).

그런데 大阿彌陀經<sup>68)</sup>에는

“於是에 第一 四天王天의 諸天人이 持百千花香 百千音樂하고 自空而降하여 以供養佛及菩薩 聲聞之衆하고는 聽聞說法하여 散諸香花하고 奏諸音樂하며, 於是에 第二 忉利天和 上至欲界諸天和 以至 第七 梵天及 三十六天하니 如是等天의 諸天人이……”

라고 있어서, 36 天의 존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天名과 내용은言及이 되어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天台四教儀에 의하면, 四天王天은 須彌山의 中턱(山腹)에 있고 忉利天은 須彌山의 꼭대기(山頂)에 있는데, 이 두 하늘에는 上品의 十善을 닦아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夜摩天과 兜率天和 化樂天和 他化自在天은 공중에 있는데(空居) 上品 十善과 또 坐禪 않고 定에 이르는 것을 닦아서 거기에서 태어나며, 色界 18 天중에서 四禪 9 天중의 無雲·福生·廣果 3 天은 凡夫의 住處이고 上品 十善과 坐禪을 닦은 자가 태어나게 되며, 無想天은 外道의 所居이며, 無煩·無熱·善見·善現·色究竟의 5 天은 第三果의 居處인데, 이상 9 天은 離欲龜散이나 未出色籠이므로 色界라 이름하며 앞서 禪定을 얻기 때문에 禪이라 이름한다는 것이며, 無色界의 4 天은 四陰만이 있고 色蘊이 없으므로 無色界라고 이름한다는 것이다.<sup>69)</sup>

또 立世阿毘曇論에는 地(剡浮提)上으로부터 4 萬由旬위에 四大天王天이 있으며, 三十三天의 住處는 地上에서 8 萬由旬, 夜摩天의 住處는 16 萬由旬, (以下 모두 剡浮提地上에서), 兜率陀天은 3 億 2 萬由旬, 化樂天은 六億四萬由旬, 他化自在天은 12 億 8 萬由旬위에 있으며, 剡浮提(地上)와 梵處(天)의 거리는 梵天에서 四方 百丈의 大石을 떨어트려 중간에 걸리지 않고 곧바로 내려온다면 1 年間이 걸리는데, 梵天에서 少光天까지

64) 大方廣佛華嚴經(60卷) 卷第12 菩薩無盡藏品 第18(新修藏 第9卷 p.477 中).

65) 佛說長阿含經 卷第20 第4分 世記經 忉利天品 第9(新修藏 第1卷 p.135 下~136 上).

66) 起世經 卷第8 三十三天品 第8之 3(上同, p.348 中).

67) 起世因本經 卷第8 三十三天品 下(上同, p.403 中).

68) 佛說大阿彌陀經 卷下 大會說法分 第30(新修藏 第12卷 p.334 中).

69) 前揭 註60과 同.

는 그보다 한 배가 더 길리며, 少光天에서 無量光天까지는 다시 그보다 한 배, 無量光天에서 遍勝光天은 또 그보다 한 배, 遍勝光天에서 少淨天은 다시 더 한 배, 少淨天에서 無量淨天은 또 한 배, 無量淨天에서 遍淨天은 다시 한 배 더, 遍淨天에서 無雲天은 그보다 한 배 더, 無雲天에서 生福天은 다시 한 배 더, 生福天에서 廣果天은 또 그보다 한 배, 廣果天에서 無想天은 다시 더 한 배, 無想天에서 善現天은 또 더 한 배, 善現天에서 善見天은 다시 한 배, 善見天에서 不煩天은 또 다시 한 배, 不煩天에서 不燒天은 그보다 더 한 배, 不燒天에서 阿迦尼吒天까지는 다시 한 배가 더 멀다고 하여,

阿迦尼吒天에서 剡浮提地까지는

大密石山을 던져 65,535年을

中間에 無碍하다면 비로소 剡浮에 이르게 된다.

라는 偈言을 說하여 있다.<sup>70)</sup> 즉 剡浮提(人間地上)에서 四王天까지는 4萬由旬이며, 剡浮提와 阿迦尼吒(色究竟)天까지는 그 하늘에서 大石山을 던져 65,535年을 걸려 떨어져 닿게되는 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起世經에는 須彌山의 半 높이 4萬2千由旬에 四大天王의 所居 宮殿이 있고, 須彌山上에 帝釋의 所居인 三十三天의 宮殿이 있으며, 三十三天의 위 한 배의 높이에 夜摩諸天의 所居宮殿이 있고, 夜摩天上의 다시 한 배 높이에 兜率陀天 所居宮殿이 있으며, 그 天上 또 다시 한 배에 化樂諸天 所居宮殿이 있고, 그 위의 다시 한 배에 他化自在諸天 所居 宮殿이 있으며, 또 그 위의 다시 한 배에 梵身諸天 所居宮殿이 있는데, 他化天과 梵身天과의 中間에 魔羅波旬諸天의 宮殿이 있으며, 梵身天의 倍높이에 光音天이 있고 그 배 높이에 遍淨天이 있으며, 내지 色界 最高天인 阿迦尼吒天에 이르기까지 각각 天의 한 배 높이에 각 上天이 위치한다고 있으며, 阿迦尼吒天의 위에 다시 無色界의 諸天(無邊空處·無邊識處·無所有處·非想非非想處)이 있다는 것이다.<sup>71)</sup>

그리고 業報差別經에는, 增上의 十善을 具足 修行하므로써 欲界諸天에 태어나게 되며, 有漏의 十善을 修行하여 定과 相應하므로써 色界諸天에 태어나게 되며, 다시 衆生으로 하여금 無色天에 나게 하는 네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一切의 色想을 지나서 有對의 想等을 滅하여 空處定에 들어가는 것, 둘째는 一切의 空處定을 지나서 識處定에 들어가는 것, 셋째는 一切의 識處定을 지나서 無所有處定에 들어가는 것, 넷째는 無所有處定을 지나서 非想非非想處定에 들어가는 것, 이 四學으로써 無色天의 報를 얻게 된다<sup>72)</sup> 라고 하여 있다.

또 十善業을 닦아서 欲天에 태어나고 十定善을 닦아서 色界天에 태어나며, 三摩鉢底

70) 立世阿毘曇論 卷第6 云何品(新修藏 第32卷 p.199 上)

71) 起世經 卷第1 閻浮洲品 第1(新修藏 第1卷 p.311 上).

72) 佛爲首迦長者說業報差別經(新修藏 第1卷 p.893 中).

(定)를 修習하는 因으로 無色界의 四天에 나게 된다<sup>73)</sup>는 등의 說을 여러 佛典에서 볼 수가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은 經典 외에도 天界 및 天의 類別이나 그 높이 및 生天의 修因 등에 관하여 說하고 있는 佛典이 적지 않으며, 또 여러 곳에서 諸天의 壽命 및 身量에 대하여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복잡을 피하여 三界 各天의 壽命과 身量등을 생략하고, 生天의 因由나 그 높이 등에 관하여서도 더 例擧치 않기로 한다.

다만 앞에서 본 天界의 類別 외에 또 天의 種類에 대한 說이 보이므로 여기에 그 몇 가지를 대충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涅槃經에는 4種天을 들고 있으니, 첫째는 世間天, 둘째는 生天, 세째는 淨天, 네째는 義天인데, 世間天이란 世間的 諸國王을 말함이고, 生天이란 四天王에서 부터 非有·想非無想天에 이르기까지의 하늘을 가리킴이며, 淨天이란 須陀洹으로부터 (斯多含·阿那含·阿羅漢)辟支佛까지를 말하며 義天이란 十住菩薩摩訶薩 등을 가리킨다<sup>74)</sup>는 것이다.

分別功德論에는 擧天和 生天 및 清淨天의 三種天을 들고 있는데, 轉輪聖王은 衆人에게 받들리워 十善으로써 세상을 가르쳐 또한 사람들을 하늘에 태어나게 하며 世間人의 위에 있기 때문에 擧天이라고 일컫게 되며, 四天王에서 28天에 이르는 諸天은 流轉을 쉬지않고 生死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룸하여 生天이라고 하며, 佛과 緣覺과 聲聞은 모두 結使를 다하고 三界를 나와 清淨無欲하기 때문에 清淨天이라고 한다<sup>75)</sup>는 것이다. 즉 擧天은 世間的 轉輪聖王이요, 生天은 하늘(四天王등의 天界)이며, 清淨天은 佛·緣覺·聲聞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大智度論에는 名天和 生天和 淨天和 生淨天의 네가지 하늘을 보이고 있으니, 名天은 現世 國王을 天子라고 이룸하는 것과 같으며, 生天은 四天王으로부터 非有想非無想天에 이르기까지의 諸天이며, 淨天이란 사람들 가운데에 生하는 諸聖人이며, 生淨天이란 三界의 天中에 生하는 諸聖人이라는 것이다.<sup>76)</sup>

이들 4種天 또는 3種天의 說은 하늘이라고 이룸할 수 있는 경우가 그와 같이 세가지 또는 네가지이며, 우리가 지금 하늘(天神·天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에서 하늘(天)이라고 이룸볼일 수 있는 部類가 그처럼 4種 또는 3種이라는 것이지, 하늘(天神·天界) 자체를 네가지 혹은 세가지로 分類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리고 또 起世因本經에는

73) 分別善惡報應經 卷上(上同, p. 897 下).

74) 大般涅槃經 卷第22 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第10之2(新修藏 第12卷 p. 494 中).

75) 分別功德論 卷第3(新修藏 第25卷 p. 37 中·下).

76) 大智度論 卷第22 初品中 八念義 第36之餘(上同, p. 227 下).

“世間에 다시 四種大天이 있으니 地多大天和 水多大天和 火多大天和 風多大天이다.”  
라고 하여, 이들에 대한言及이 있고나서 마지막에

“이들을 이룸하여 四大天神이라 한다”

라고 하여있다.<sup>77)</sup>

이 經의 異譯經인 長阿含 世記經에도

“四大天神이 있으니 一者는 地神이요, 二者는 水神이요, 三者는 風神이요, 四者는 火神이다.”<sup>78)</sup>

라고 하여 있다.

앞의 경우에는 地多大天(神) 水多大天(神) 등으로 각각 四大天 또는 四大天神이라 하여 있는데, 뒤의 경우는 四大天神이라 하면서도 그 각각의 명칭에는 地神 水神 風神 火神이라 하여 있다. 즉 地水火風 四大의 神을 四大天神이라 하고 또는 각각 多大天(神)이라고 붙여서 불렀음을 알게된다 하겠다. 그러나 이들 經과 同經異譯인 起世經에는 이 同一項에

“世間에 다시 四種大神이 있으니 地大大神 水大大神 火大大神 風大大神이다.”<sup>79)</sup>라고 있어서, 다만 大神이라고만 하여있을 뿐이지 天神이라고는 되어있지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天이나 天神이란 단순히 四大의 神인 大神을 天 또는 天神으로 번역해서 일컫는 것이지, 天界에 사는 天神(天人)을 가리킨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또 많은 佛典에서는 佛陀를 天中天이라고 하여 있는데<sup>80)</sup> 그와 같은 天의 用例는 매우 많이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오직 天界와 天人 특히 天神에 관한 것만을 다루려는 것이므로, 그 밖의 天에 관한 문제들은 더 言及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 (3) 勸請護法の 天神

이상과 같은 하늘(天神)들은 佛法이 이 세상에 久住 普化할 수 있도록 說法(轉法輪)을 勸請하고, 佛陀의 說法道場에 來現하여 聽法 奉佛하고 佛法을 守護하여 항상 恭敬 供養한다는 것이다.

佛陀가 처음 成道한 뒤 梵天의 지극한 勸請에 의하여 비로소 初轉法輪의 길에 나섰다는 것은 수많은 經典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으며,<sup>81)</sup> 華嚴經에는 無量月身天子와 無量日天子와 釋提桓因天王 등 無量三十三天王과 無量夜摩天王, 無量兜率天王, 不可思議化樂天王 등 無量 不可思議의 諸天王과 無量光音天子와 阿僧祇 遍淨天和 無量果實天子

77) 起世因本經 卷第8 三十三天品 下(新修藏 第1卷 p.403 下).

78) 佛說長阿含經 卷第20 世記經 初利天品 第8(上同, p.136 上).

79) 起世經 卷第8 三十三天品(上同, p.348 中).

80) 佛本行經 卷第4 廣度品(新修藏 第4卷 p.82 上)

“獨爲一切護 獨爲世間師 爲天人爲導 號佛 天中天” 등.

81) “般神妙梵天 方便見無偏 知佛世尊誓 發心欲來下 欲以善益世 妙辭請法雨”(佛本行經 卷4 轉法輪品) 등, 長阿含經(卷1 大本經)과 佛所行讚(卷3 阿惟三菩提品) 및 많은 佛典에 보이고 있다.

와 摩醯首羅天 등의 無量淨居天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天王과 天衆들이 모두 佛陀의 道場에 그 眷屬으로서 會集하여 佛法을 讚仰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sup>82)</sup> 또한 佛陀가 王舍城의 耆闍崛山中에서 法華經을 說할 때에도 釋提桓因이 그 眷屬 2萬天子와 月天子 普香天子 寶光天子와 四大天王도 그 眷屬萬天子와, 自在天子 大自在天子도 그 眷屬 3萬天子와, 娑婆世界主 梵天王과 尸棄大梵 光明大梵 등도 그 眷屬 萬二千天子와 더불어 說法道場의 大聽法會衆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sup>83)</sup> 이와 같은 경우 역시 많은 經典에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聽法衆으로서의 天神은 佛陀에게 法을 請問하며,<sup>84)</sup> 또 길이 佛法을 守護하여 說法師와 聽法衆과 그 國土까지를 擁護한다는 것이다.<sup>85)</sup>

그리고 또 四天王天 및 忉利天과 諸天의 天人들이 百千花香과 百千音樂을 가지고 公衆에서 내려와 佛 및 菩薩 聲聞衆에 供養하고 佛의 說法을 들으며 香花를 뿌리고 音樂을 演奏하는 등 갖가지의 供養을 갖추어 佛에게 올린다는 것이다.<sup>86)</sup> 그러므로 佛菩薩이 法을 說할 때에는 땅이 6種으로 震動하고 하늘에서 妙華가 비처럼 그 위에 흩어져 내리고 音樂이 공중에서 들려온다는 것이다.<sup>87)</sup>

대략 이상과 같이 보므로써 天神은 諸護法衆(天龍八部衆) 가운데서 가장 威力이 있고 제일 적극적인 奉佛 護法의 神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天神이므로 佛法을 항상 擁護하는 것(此諸佛常法 天神所擁護)<sup>88)</sup>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 3. 新羅의 天神信仰과 그 思想의 特性

앞에서 우리는 新羅에서의 天神關係(佛敎傳來 以後의) 史例와 佛典上에 보이는 하늘에 관하여 그 대강을 알아보았다.

이상의 두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新羅의 역사에 보이고 있는 佛敎的인 天神信仰과 그 思想의 特殊性을 考察할 수가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먼저 天神信仰의 諸形態와 그 新羅의 展開부터 보고, 다음에 新羅 佛敎天神

82) 大方廣佛華嚴經(晉譯) 卷第1 世間淨眼品 第1(新修藏 第9卷 p. 396~401).

83) 妙法蓮華經 卷第1 序品(上同, p. 2 上).

84) “爾時天帝釋 承佛威力 即從座起 偏袒右肩 右膝著地 合掌向佛 而白佛言 世尊 云何善男子善女人 願求阿耨多羅三藐三菩提 修行大乘……”(金光明最勝王經 卷3 滅業障品·新修藏 第16卷 p. 413 下) 등.

85) “爾時大梵天王 與無量梵衆 帝釋 四王及諸樂叉 俱從座起 偏袒右肩 右膝著地 合掌恭敬 而白佛言 世尊 我等皆願守護流通是金光明微妙經典 及說法師若有諸難 我當除遣令具衆善 色力充足 辯才無碍 身意泰然 時會聽者皆受安樂 所在國土 若有飢饉怨賊非人爲惱害者 我等天衆皆爲擁護 使其人民安隱豐樂無諸枉橫 皆是我等天衆之力 若有供養是經典者 我等亦當恭敬供養如佛不異”(上同經 卷第5 依空滿願品·上同, p. 426 下) 등.

86) 佛說大阿彌陀經 卷下 大會說法分 第30(新修藏 第12卷 p. 334 中).

佛說如幻三摩地無量印法門經 卷中(上同, p. 360 上).

大般涅槃經 卷第1 壽命品 第1(上同, p. 369 中·下) 등.

87) 無量壽經 卷上(上同, p. 269 下).

“虛空諸天人(神) 當雨珍妙華. ……應時普地六種震動 天雨妙華以散其上 自然音樂空中讚言” 등.

88) 長阿含經 卷第1 大本經(新修藏 第1卷 p. 4 上).

의 思想的 特殊性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新羅天神信仰의 類形과 그 展開

앞에서 摘記해 본 諸史例에 보이는 新羅에서의 하늘(天·天神)들을 그 類形別로 整理해 본다면, 兜率天 忉利天(三十三天·帝釋) 四天王(天) 梵天王 辯才天(女) 其他 天神(淨居天衆·靜聖天王 및 하늘 관계)들로 類別해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하늘들을 각각 그 類形別로 新羅에서의 信仰事實과 展開등에 관하여 整理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 ① 兜率天

앞의 史例 項 (6)의 ②에서 이미 본바와 같이, 두 해(日) 並現의 怪變을 禳滅하는 緣僧 月明이 散花功德을 짓는 佛事에 兜率天의 彌勒菩薩을 대상으로하여 兜率天 곧 彌勒님에게 노래를 불러 散花의 功德을 지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日怪는 곧 없어졌으므로, 王은 기뻐하여 月明에게 品茶 한벌과 水精念珠 百八개를 주려고하자 마침 한 童子가 갑자기 나타나 그 茶와 念珠를 직접 받아가지고는 內院의 塔속으로 들어가버렸는데 茶와 念珠는 南壁의 慈氏(彌勒)畫像앞에 놓여있었다. 그래서 모두 그 童子의 出現을 彌勒(兜率天에 있는)의 感應으로 알게되었다는 것이다.

또 前揭 史例 項 (6)의 ③에서 본것처럼, 彌勒像 앞에서 戒法을 勤求하고 피나는 精進을 하였던 眞表가 天眼을 얻고 兜率天衆이 내려오는 모습(兜率天衆來儀之相)을 보았으며, 그와 같이 天衆의 응위를 받으며 兜率天에서 내려온 彌勒은 眞表의 이마를 만지면서 그 精進을 찬탄 격려해 주었고, 또 傳法의 簡子를 주면서 뒷날 兜率天에 태어날 것임을 일러 주었다는 것이다. 다시 그 뒤에 眞表가 金山寺를 創成하였을 때 또 彌勒菩薩이 兜率天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戒法을 주는 感應을 보았으며, 그는 彌勒丈六像을 鑄成하고 金堂의 南壁에 彌勒이 내려와 戒를 받게하는 威儀의 相을 그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三國遺事に 보이고 있는 兜率天에 관한 직접적인 事例는 이상의 두가지(註 25와 26에서 이미 典據 明示하였음)뿐이다. 그러나 新羅에서의 率兜天信仰을 알게하는 자료는 이 밖에도 전연 없는 바는 아니다. 新羅의 兜率天信仰이 보여주는 性格과 그 展開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佛典에 보이고 있는 兜率天부터 잠시 概觀해 보고자 한다.

兜率天은 欲界 6天 중의 제 4天이며, 兜率이란 Tuṣita(梵) tusita(巴)의 소리옴긴 漢字音으로서 都率·兜術·兜率陀·觀史多·兜駛多 등으로도 쓰이는데, 뜻으로 옮겨서 知足·妙足·喜足·喜樂天 등으로도 불리우는 하늘이다. 이 하늘은 欲界 제 3天인 夜摩天에서 16萬由旬 閻浮提(地上)에서 32萬(3億2萬)由旬의 높은 거리에 위치하는 虛空密雲의 위에 있으며, 縱廣이 8萬由旬이라는 것이다. 이 곳 天人들은 壽命이 4千年이며 그 한 晝夜는 人間界의 4百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sup>89)</sup>

佛地經論 에서는

“都史多天은 後身菩薩이 그 중에서 敎化하고 喜足을 多修하므로 이름을 喜足天이라 한다.”<sup>90)</sup>

라고 하여있으며, 立世阿毘曇論에는

“歡樂 飽滿하고 그 資具에 있어서 滿足을 自知하며, 八聖道에 있어서 知足을 不生하므로 이름을 兜率陀天이라 한다.”<sup>91)</sup>

라고 하여있다.

佛本行集經에 의하면, 兜率陀天에는 반드시 一生輔處菩薩(다음생에 成佛하는 有情最後身의 菩薩)이 往生하여 마음에 歡喜가 생기고 智慧가 滿足해진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兜率天보다 아래의 諸天은 放逸이 많고 그보다 上界의 諸天은 禪定力이 많아 寂定 軟弱하여 生을 求하지 않고 樂을 받으며 또 一切衆生을 위한 慈悲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菩薩은 다만 모든 衆生을 敎化하기 위한 까닭으로 兜率天에 生하며, 下界의 諸天和 上界의 諸天이 兜率天에 가서 菩薩의 說法을 듣는다는 것이다.<sup>92)</sup> 즉 兜率天은 一生輔處菩薩이 태어나서 諸天衆을 위하여 說法敎化하는 곳인데 一生補處菩薩이 하필 그 하늘에 往生하는 까닭은, 그 아래의 여러 하늘들에는 放逸함이 많고 또 그 위의 모든 하늘들은 禪定力이 많아 一切衆生을 위하는 慈悲心을 내지 않으므로 諸衆生을 敎化하는에는 兜率天이 가장 적합한 하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三界의 모든 하늘 중에서 一生補處菩薩이 住하면서 衆生을 위해 說法敎化하기에 가장 알맞는 장소가 兜率天이라는 것이다.

兜率天이 그러한 하늘이므로 釋迦佛 前身인 護明菩薩도 거기에 있었고,<sup>93)</sup> 또 當來佛이 될 彌勒菩薩도 현재 그 곳 寶宮에서 諸天衆을 위하여 說法敎化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와 같은 兜率天宮의 莊嚴과 上生因緣에 관한 여러가지를 彌勒上生經에서 詳說하여 있다.<sup>94)</sup>

그러므로 兜率天은 三界 諸天중에서 欲界 第4天에 불과한 비교적 下位의 하늘이지만, 다른 天界들과는 달리 一生補處菩薩이 常住說法하는 佛敎의인 특수한 하늘임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다음대의 부처님이 될 것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부처 候補者(一生補處菩薩)가 머무는 하늘이 兜率天이며, 현재 그곳에는 彌勒菩薩이 살고있다는 것

89) 長阿含 世記經, 大樓炭經, 起世經, 立世阿毘曇論, 俱舍論 등 諸經論.

90) 佛地經論 卷第5(新修藏 第26卷 p.316 下).

91) 立世阿毘曇論 卷第6 云何品 第20(新修藏 第32卷 p.198 上).

92) 佛本行集經 卷第5 上託兜率品 第4 上(新修藏 第3卷 p.676 中)

“命終之後 必生天上 或高或下不定一天 而其一生補處菩薩 多必生兜率陀天 心生歡喜 智慧滿足 何以故在下諸天 多有放逸 上界諸天 禪定力多 寂定軟弱 不求於生以受樂故 又復不爲一切衆生慈悲故 菩薩不然 但爲敎化諸衆生故 生兜率天 下界諸天 爲聽法故 上兜率天 聽受於法 上界諸天 復爲法故 亦有下來兜率陀天 聽受於法”

93) 上揭 佛本行集經 및 普曜經, 方廣大莊嚴經, 過去現在因果經 등.

94)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新修藏 第14卷 p.418~420).

이다.

그와 같은 一生補處菩薩 專用的 佛教하늘인 兜率天이 新羅 佛敎人들에게 信仰되어졌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彌勒이 說法하고 있는 兜率天에 往生하고자 하는 信仰을 彌勒上生信仰이라 하므로, 上生信仰은 결국 兜率天 上生을 希求하는 信仰이 된다. 많은 하늘 중에서도 더욱 上位에 있고 福樂이 많은 하늘(특히 色界와 無色界 諸天)들을 제쳐놓고 兜率天上生을 希求하는 것은 바로 그 하늘에 彌勒菩薩이 常住說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新羅에서도 兜率天 上生信仰이 있었다면 그것은 물론 彌勒菩薩의 說法處에 태어나서 敎化를 받고 먼 훗날 彌勒이 下生하여 成佛할 때 같이 따라 날 것을 念願하는 信仰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新羅에서의 兜率天信仰事例에서는 그러한 上生的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兜率天에 往生하기를 希求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兜率天에 있는 彌勒을 향하여 祈禳願求한 것으로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月明은 日怪祈禳의 散花功德을 兜率天의 彌勒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眞表는 彌勒에게 戒法을 懇求하여 끝내는 兜率天에서 彌勒이 下降하는 來儀之相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上生希求의 兜率天信仰이라 하기 보다는 오히려 彌勒菩薩에의 祈求信仰이라고 하는 편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아 新羅에서는 兜率天 上生信仰은 보이지 않고 단순히 彌勒信仰만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그 彌勒菩薩의 現住處가 兜率天이기 때문에言及이 되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 두가지 사실(月明의 兜率歌와 眞表의 彌勒下降受戒)의 예도 遺事에는 彌勒信仰의 事例가 더러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몇가지 예는 비록 兜率天이 言及되어 있지 않고 新羅에서의 彌勒像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은 兜率天에 있는 彌勒을 향한 祈求와 願望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興輪寺의 堂主 彌勒像 앞에서 항상 花郎으로(彌勒大聖이 직접)化作하기를 至誠으로 祈禱發願하였던 眞慈<sup>95)</sup>가 祈求한 직접적인 대상은 興輪寺의 彌勒像이지만 사실 그의 發願이 향한 곳은 눈앞의 만들려진 彌勒像이 아니라 그 像이 상징하고있는 兜率天의 眞身彌勒菩薩이었으리라는 것이다. 또 竹旨嶺 居士의 무덤앞에 石彌勒像을 安置하였던 述宗公<sup>96)</sup>의 경우와, 金志誠이 亡父 亡母를 위하여 造成하였다는 甘山寺의 石彌勒像<sup>97)</sup>도 실은 兜率天의 彌勒菩薩을 향한 祈求와 願望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본다면 新羅에서의 兜率天信仰은 바로 彌勒信仰과 直結된다고 할 수 있으며, 사실은 兜率天의 信仰이 아니라 현재 兜率天에 자리하고 있는 彌勒菩薩에의 信仰

95) 三國遺事 卷3 塔像4, 彌勒仙花 末尸邱 眞慈師 條.

96) 遺事 卷2, 孝昭王代 竹旨郎 條.

97) 上同 3 塔像4, 南月山(甘山寺)條.

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新羅의 兜率天關係信仰을 언급함에 있어서 여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遺事所傳의 事例가 아니고 三國史記 所傳의 한 說話를 통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三國史記 金庾信傳<sup>98)</sup>에 의하면, 金庾信이 15세에 花郎이 되어 그 무리를 龍華香徒라고 이름하였으며, 그가 17세 때에는 당시 高句麗와 百濟 등 이웃나라의 침범이 잦았으므로 큰 뜻을 품고 홀로 中岳의 石堀로 들어가서 齊戒하고 告天盟誓하기를 ‘敵國이 無道하여 豺虎처럼 우리 나라를 침노하여 편할 날이 없으므로 내 비록 재주와 힘이 없으나 나라의 禍亂을 구할 뜻이오니 하늘은 살피시와 나에게 힘을 내려주소서’라고 하여 4日째 되는날 한 老人을 만나 秘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삼을려고 하는 것은 齊戒告天했다는 그 하늘과 老人의 정체에 대하여서이다.

石堀에서 告天祈求하는 소년 庾信의 앞에 홀연히 나타난 그 노인은

“이곳은 毒蟲과 猛獸가 많아 위험한데 貴少年이 이 외딴곳에 와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였으므로, 庾信은

“어른께서는 어디서 오신 뒤시옵지요?”

하고 되물으니, 그 노인은

“나는 머무는 곳이 없고 인연을 따라 다니며(吾無所住 行止隨緣), 이름은 難勝이다.”라고 하였으므로, 庾信은 그 노인이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고 再拜하며 涕淚懇請하여 끝내는 秘法을 전해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안고있는 것이 바로 難勝이라는 노인의 이름이다. 왜냐하면 難勝이란 菩薩十地중의 제 5 難勝地의 菩薩名과 그 이름이 같을뿐만 아니라 이 難勝地에 있는 菩薩 즉 難勝菩薩<sup>99)</sup>은 거의 대부분이 兜率天王으로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노인의 ‘머무는 곳없이 인연따라 行止한다’는 말만으로도 菩薩行的인 면을 볼 수가 있는데, 難勝菩薩이 兜率天王으로 된다는데에다가 庾信이 하늘에 祈求하였을 때 그 앞에 나타난 노인이 難勝이라고 자칭하였으니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위에 또 龍華香徒 즉 彌勒(龍華는 彌勒을 가리킴)에 禮佛하여 香華올리는 무리를 이끌었던 花郎 庾信이 彌勒信奉者였으므로 그가 하늘에 祈求하였다면 그 對象 하늘은 응당 彌勒이 居住하고있는 兜率天이었을 것인데, 그 兜率天의 天王인 難勝菩薩과 이름이 같은 難勝老人이 告天祈禱하는 庾信의 앞에 나타났으니 그 老人이 틀림없는 兜率天王(難勝菩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sup>100)</sup>

98) 三國史記 卷第41 列傳第1, 金庾信 上(朝鮮史學會 刊 p.426).

99) 大方廣佛華嚴經 卷第25 十地品 第22之3(新修藏 第9卷 p.556下 및 557下)

“是名略說菩薩難勝地 菩薩住是地中 多作兜率陀天王……” “……多作兜率王”

100) 難勝老人의 正體와 庾信이 告天祈禱한 하늘이 兜率天이라는 것을 이미 拙稿 ‘新羅 統一完邊의 領導者와 佛敎’(東大 論文集 第12輯 p.106~108)에서 밝힌바가 있다.

그러므로 庾信의 앞에 나타나 秘法을 傳授한 老人은 兜率天王이 된 難勝菩薩이며, 彌勒菩薩의 說法을 듣고 教化를 받고있는 兜率天王(難勝菩薩)이 彌勒住在의 하늘(兜率天)을 향해 至誠으로 祈求하고 있는 花郎庾信의 앞에 나타나 뜻을 이루게 해주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여기서도 兜率天信仰은 곧 彌勒信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 (2) 忉利天(帝釋)

앞의 史例 項에서 본바와 같이 遺事에는 天帝釋과 忉利天(三十三天)에 관한 信仰흔 적이 적지않게 보이고 있다.

諸天 중에서 佛典에 가장 많이 보이고 있으며 또 자세하게 언급되어있는 하늘이 忉利天(天帝釋)이라고 할 것이다. 忉利天 Trāyastriṃśa(梵) Tāvātimsa(巴)은 欲界 제 2 天으로서 平地上으로부터 8萬由旬높이의 須彌山 頂上에 있다고 하는 하늘이다. 이 하늘은 四方에 각각 여덟 곳의 天城이 있고 中央에 한 天城이 있어서 모두 33곳의 天城이 있으므로 忉利天을 三十三天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늘 城은 縱廣이 8萬由旬이며 그 城은 7重으로 되어 7重欄楯과 7重羅網과 7重行樹와 7寶의 校飾으로 둘러져 있으며 城의 높이는 百由旬이라는 것이다. 그 하늘(三十三天)의 가장 중앙 平正하고 最勝한 곳에 純金으로 城을 쌓은 善見城이 있는데, 이 곳에 忉利天의 主宰者인 天帝釋이 居住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善見城안의 善法堂에 天神이 때때로 모여 如法과 不如法의 일을 의논한다는 것이다.<sup>101)</sup>

天帝釋은 釋迦提婆因陀羅 Śakro devānām Indraḥ(梵) Śakko devānam Indo(巴) 또는 釋提婆那民 釋提桓因 因陀羅 등으로도 쓰이며, 因 또는 帝釋이라고 略稱하기도 하는데, 諸天중의 因陀羅(곧 天帝 혹은 天主)인 釋迦羅 Śakra의 뜻이므로 天帝釋 혹은 天主帝釋이라 하며, 帝釋 또는 天帝(天主)라고 略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天帝釋은 忉利天의 善見城에 살면서 諸天衆 및 四王天을 거느리고 佛法을 守護하며 佛陀로부터 法藏護持의 付囑을 받은 護法 勸善 護世의 天神이라는 것이다.<sup>102)</sup>

그러한 天帝釋은 앞의 史例 項 (2)의 ①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眞平王의 即位年에 天使에게 玉帶를 가지고 내려가(眞平王에게)전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玉帶를 天賜玉帶라고 하며 新羅에서는 護國三寶의 하나로 받들었다는 것이다.

또 眞平王은 內帝釋宮을 세웠는데 이 절을 天柱寺라고도 하였다는 것이니, 天柱寺는 天主寺와 같은 뜻일 것이며 또한 天主 즉 天帝寺와도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天柱 즉 天主(天帝)寺나 帝釋寺(帝釋宮)는 전연 같은 뜻을 가진 寺

101) 佛說長阿含經 卷20 世記經, 起世因本經(및 起世經) 卷 6~8, 大樓炭經 卷4, 中阿含經 卷11, 雜阿含經 卷40, 增一阿含經 卷6, 正法念處經 卷 25~35, 大智度論 卷54, 立世阿毘曇論 卷2, 俱舍論 卷11 등.

102) 上記 諸典 및 海龍王經, 放光 道行 小品 佛母出生三法藏 등의 般若經 釋提桓因品, 佛說四天王經, 阿育王經 卷6 등.

名이라고 할 것이다. 內帝釋宮이 보이므로 外帝釋宮도 있을법한 일이며 이를 통하여 新羅 제26代 眞平王은 帝釋을 護法護國의 天神으로 信仰하였기 때문에 帝釋寺를 세워서 崇奉佛法하고 擁衛國家하기를 바랐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하겠다. 그러므로 帝釋이 天使를 시켜 眞平王에게 玉帶를 바치게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03)</sup>

眞平王에게 玉帶를 내려보낸 上皇(天使의 傳言)이 帝釋天帝였다는 것은 틀림이 없으며, 帝釋이 玉帶를 내려보냈다는 그 사실에서 天神 특히 天帝釋이 新羅를 항상 擁護한다는 것을 엿보게하여 주고 있다할 것이다. 帝釋宮을 지어 天神이 이 땅에 常住하도록 하였던 眞平王이었으므로, 天帝釋이 그 信標로서 玉帶를 내려보내 護國의 상징이 되게 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天賜玉帶는 帝釋이 眞平王과 新羅人의 佛法崇奉心에 感應한것을 나타내 보인 것이며, 天神 常護持의 新羅國土라는 自負心을 가졌던 당시 新羅的 佛敎信仰의 한 產物이었다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天帝釋과 新羅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하늘(初利天 즉 三十三天)의 한 아들을 新羅로 내려보내 三國을 통일하여 이웃 나라들로부터의 침범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또 그(金庾信)의 死後에는 다시 그 하늘로 되돌아가 天神이 되어 통일된 新羅의 國土를 守護하는 護國神이 되게 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겠다. 즉 앞의 史例項 (5)의 ①, ②에서 본 것처럼, 三國통일의 主役이었던 新羅의 金庾信은 일찌기 三十三天의 한 아들(三十三天之一子)로서 이 땅에 태어났으며, 그 死後에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 天神이 되어 文武王이 死後에 化現한 東海의 護國龍과 함께 護國의 神寶인 萬波息笛을 내놓았다는 것이다.<sup>104)</sup> 더우기 新羅人들은 唐太宗의 이름을 僭稱했다 하여 太宗武烈王의 號를 고치라고 호통하였던 唐帝가 太子時에 하늘에서 ‘三十三天의 한 사람이 新羅에 下降하여 金庾信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일을 상기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改號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까지 그 이유를 밝히면서 金庾信이 三十三天의 一人이었다는 것을 事實化시키려 하고있음을 볼 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史例 (6)의 ①, ②에서 본 바와 같이 表訓이 天宮에 자주 왕래하였다는 그 天宮도 天帝의 天宮이므로 初利天 善見城의 帝釋天宮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地上에서 8萬由旬이나 높은 初利天의 帝釋天宮을 新羅의 大德表訓이 이웃집 드나들듯 하였다는 것에서 더욱 당시 新羅國土와 帝釋과의 親密度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항상 天帝釋이 新羅를 擁衛하고 있으므로 初利天和 新羅와는 전혀 8萬由旬이라는 距離感이 없음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栢栗寺의 觀音像이 初利天

103) 眞平王의 天賜玉帶에 관하여서는 拙稿 ‘新羅佛敎護國思想’(朴吉眞博士華甲記念 韓國佛敎思想史, 1975年刊 p.122~125)에서 말한 바가 있다.

104) 三十三天의 一人(天神)으로서의 金庾信과 萬波息笛에 관하여서도 拙稿 ‘萬波息笛說話攷’(東大 論文集 第11輯 1973年刊)에서 살펴본 바가 있다.

에 往來하였다(栢栗寺條)는 것도 그와같이 新羅와 忉利天과의 密接性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예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景德王이 아들을 들 수 없는 팔자였는데도 자꾸 表訓으로 하여금 天帝에게 간청하여 아들을 얻고자 하였으며 끝내는 딸이 될 것을 아들이 되도록까지 원하였으므로, 天帝는 그 청을 들어주고는 곧 하늘과 인간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웃집 드나들듯 하면서 天機를 漏洩하여서는 안된다고하여 다시는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天帝가 인간의 生男 生女를 마음대로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었음을 보게되며, 王이 자신의 욕심만을 생각하고 天道를 무시하려 하였으므로 하늘에의 通路를 막고 常護持의 天神을 하늘나라로 철수해 가버렸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겠다. 어쨌든 그 후(惠恭王時부터) 나라는 어지러워졌고 또 新羅에는 다시(表訓 이후로) 聖인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니, 護法善神인 帝釋이 擁衛(常護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확실한 年代를 알 수가 없지만 景德王代 혹은 그 보다 조금 앞선 때 즈음으로 보이는 寶川太子가 五臺山에 들어가 修道할 때에 忉利天神이 내려와 세때에 聽法하였다는 것을 또한 史例 項(6)의 ⑦에서 이미 보았었다. 여기서도 護法善神이며 聽法天神으로서의 忉利天神 곧 帝釋과 그 天衆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상하게도 遺事에는 景德王代(742~765)이후로는 물론 하늘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는바는 아니지만 天帝(帝釋)나 忉利天(三十三天)에 관하여서는 전연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오직 末期에 이르러 제54대 景明王 때(917~924)에 와서 비로소 帝釋에 관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

史例 (9)의 ①에서 본바와 같이 景明王 5年 5月 15日에 帝釋이 興輪寺에 내려와 그 左經樓에 10餘日을 머물렀다는 것이다. 앞서 景德王代 이후로 전연 그 자취를 遺事에 보이지 않고 있던 帝釋이 이제 와서 불쑥 나타나 있는데, 그것도 앞에서 본 다른 경우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인 說話形態로 전해져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여기에 보이고 있는 帝釋은 火災를 입은 興輪寺의 南門과 左右廊廡의 重修佛事를 도우기 위하여 내려와 머물렀으며, 불과 몇일 사이에 工事が 끝나자 하늘로 돌아가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眞容을 그려 供養하겠다는 寺僧의 청에 오히려 普賢菩薩의 願力과 遍垂文化가 더욱 위대하므로 그 眞影을 그려 모시고 공양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시 철저한 奉佛 護法의 善神인 天帝釋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景德王 때 通路를 끊고 왕래가 없었던 帝釋이 國運衰殘의 新羅에 그것도 興輪寺라는 한 절의 南門과 廊廡의 重修를 도우기 위하여 내려와 10여일을 머물렀다는 것은 아무리 說話이기는 하지만 무척 흥미로우면서도 무언가 종래 帝釋信仰과의 連結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는 것같이도 보인다 할 것이다.

### ③ 四天王

四天王 Catvāraḥmahā-rājikāḥ(梵) Cātu-mmahārājikā(巴)은 四大天王 또는 護世四天王이라고도 하는데, 天界중에서 가장 낮은 하늘인 欲界 제 1天으로서 須彌山의 中腹(地上 4萬由旬) 사방에 자리하고 있는 四大天王天(四大王衆天) 즉 四王天의 네 天王이다. 이 天王들은 帝釋을 補佐하여 世間の 善惡을 살피고 佛法을 守護할 것을 念願하며, 佛法에 歸依한 사람들을 擁衛하는 護法 護世의 善神인데, 東方은 持國天 提頭賴吒 Dhṛtarāṣṭra(梵)이며, 南方은 增長天 毗樓勒叉 Virūḍhaka이며, 西方은 廣目天 毗樓博叉 Virūpākṣa이며, 北方은 多聞天 毗沙門 Vaiśravaṇa이다.<sup>105)</sup>

長阿含經에는

“東方 提頭賴吒天王이 乾沓耆神을 거느렸는데 大威德이 있으며, 91명의 아들이 있어서 다 字가 因陀羅인데 모두 大神力이 있다. 南方 毗樓勒叉天王은 諸龍王을 거느렸는데 大威德이 있으며, 91子が 또한 字가 因陀羅이고 大神力이 있다. 西方 毗樓博叉天王은 諸鳩槃荼鬼를 거느렸는데 大威德이 있으며, 91子 역시 字가 因陀羅이고 大神力이 있다. 北方天王 名은 毗沙門인데 諸悅叉鬼를 거느리고 大威德이 있으며, 91子 또한 字가 因陀羅인데 大神力이 있다. 이 四天王 護持世者가 大威德이 있어서 몸으로 光明을 放照하면서 迦維林中(그 때 佛이 在한 곳)에 이르렀다.”<sup>106)</sup>

라고 하여 있는데, 이에 의하면 東方의 持國天은 모든 乾闥婆神을, 南方 增長天은 龍王을, 西方 廣目天은 鳩槃荼鬼를, 北方 毗沙門天은 悅叉鬼를 각각 거느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新羅 때의 石窟庵 窟門 左右兩面에 配置되어 窟內의 諸尊 및 佛法을 守護하는 자세로 새겨져 있는 四天王像을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四天王像은 오늘날 여러 寺院 天王門에 安置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앞의 史例 (4)의 ②에서 略舉한 바와 같이 三國遺事에는 文武王 때 護國寺刹인 四天王寺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四天王寺를 세워 唐兵의 침입을 막고 護國하게 하였다고 있지만 사실은 이 四天王寺에서 明朗法師가 開設한 文豆婁(神印)秘法을 행하므로써 外兵을 退治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四天王寺는 文豆婁道場이었으며, 여기서의 文豆婁秘法은 四天王信仰의 一面이기도 하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文豆婁(神印)法에 관하여 보이고 있는 經說<sup>107)</sup>에 의하면

“天帝釋이 文頭婁法에 대한 佛의 演說을 듣고 歡喜無量하여 佛足에 稽首하고 長跪하

105) 佛說長阿含經 卷20 世記經, 大樓炭經 卷3, 起世經 卷6, 起世因本經 卷6, 增一阿含經 卷9, 金光明經卷2, 金光明最王經 卷6, 大方等大集經 卷52, 灌頂經 卷6, 正法念處經 卷19 등 經의 四天王品 및 關係部分과, 四天勝王經, 毘沙門天經, 阿育王經 卷6, 摩訶僧祇律 卷23, 大毘婆沙論 卷79, 大智度論 卷54, 立世毘曇論 卷4, 俱舍論 卷11 등.

106) 佛說長阿含經 卷12 第2分 大會經 第15(新修藏 第1卷 p.79 下~80上)

107)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 卷第7 (新修藏 第21卷 p.516 上·中).

여 佛에게 白言하기를 ‘제가 지금 佛의 威神을 欲承코자 四天王과 아울러 그 神名字에 勅하여 文頭婁法을 勸佐케 하고자 하오니 唯願컨대 世尊께오서 許可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佛은 ‘그대의 演說을 듣겠다’고 말하였으므로, 天帝釋은 곧 佛足에 禮하고 三自歸命하고는 四衆에게 말하기를 ‘지금 佛世尊께서 나의 四王名字에 대한 演說을 허락하시어 四輩의 諸弟子衆을 守護하고 舍宅과 四方의 災禍를 拂리쳐서 諸邪鬼를 界內에서 멀리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演說하리니,

東方天王名 提多羅吒는 水火變怪의 諸災橫을 主宰하여 神王名으로써 吉祥하게 하며  
西方天王名 毘留波叉는 諸逆賊 怨家 偷盜를 主宰하여 神王名으로써 吉祥케 하며,  
南方天王名 毘留離는 諸五溫의 疲勞와 疫氣와 惡毒鬪靜과 口舌을 主宰하여 神王名으로써 吉祥케 하며,

北方天王名 毘沙門은 諸鬼魅魍魎과 往來鬼神의 作災異者를 主宰하여 神王名으로써 吉祥케 한다’라고 하였다.”

는 것을 보이고 있으니, 즉 四天王은 天帝釋의 命에 의하여 佛의 威神力을 이어받아서 文頭婁法을 도와 成就케 하는 神名임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疾病 危難 恐怖 邪鬼 등을 除滅하여 護舍宅하고 消散賊亂하며 護四輩佛子하여 安穩케 하는 文頭婁法을 四天王이 도와서 衛護成就토록 한다는 것이므로, 四天王은 佛이 說한 文頭婁秘法의 補佐 守護神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唐兵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明朗法師가 文頭婁(神印)法을 행할 때 四天王寺를 일으켜 거기에서 행하였던 것이다. 즉 四天王이 擁衛 補佐하는 道場(四天王寺內)에서 文頭婁秘法을 행하였다는 것이다.

四天王經<sup>108)</sup>에 의하면

“四天神王은 곧 因(陀羅·帝釋)의 四鎮王인데, 각각 一方(四方중의)을 다스린다. 항상 每月 8日에는 使者를 내려보내어 天下를 돌아다니며 帝王과 臣民과 龍鬼와 蜎飛蚊行蠕動之類의 心念 口言 身行의 善惡을 두루 살펴보게 하며, 14日에는 太子를 내려보내고, 15日에는 四天王이 스스로 내려가고, 23日에는 使者를 다시 내려보내고, 29日에는 太子를 다시 내려보내고 30日에는 四王이 다시 내려 가는데, 四王이 내려갈 때에는 日月 五星 二十八宿이 그 중의 諸天과 함께 모두 같이 내려가며, 四王은 그들에게 命하여 衆生의 施行 吉凶을 잘 살피게하고 그날에 있어서의 歸佛 歸法 歸僧과 淸心守齋 貧乏布施와 持戒 忍辱 精進 禪定 翫經散說 開化盲冥과 孝順父母 奉事三寶와 稽首受法 行四等心 및 衆生을 慈育하는 者 등을 낱달이 分別하여 이를 帝釋에게 아뢰다.”

라고 하여 있다. 그와 같은 四天王이 文頭婁秘法을 補佐衛護하므로 新羅에서는 四天王寺를 세워 文頭婁法의 道場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108) 佛說四天王經(新修藏 第15卷 p.118 中)

## (4) 梵天王

앞의 史例 (3)의 ①에서 본 바와 같이, 唐의 太和池 龍神이 자신의 長子가 梵王의 命을 받고 新羅 皇龍寺의 護法龍으로 가있다고 慈藏에게 말하였다는 것이다.

梵王은 梵天王 즉 大梵天王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大梵天 Mahābrahmāṇa 은 色界 初禪天의 第3(혹은 4)天인데, 흔히 梵天이라고 할 때 이 初禪天의 梵衆天 梵輔天(또는 梵身天을 加하기도 함) 大梵天을 總稱하기도 하지만 梵王 또는 梵天王이라고 할 때에는 주로 大梵天王을 가리키며, 또 梵天이라고 할 경우에도 이 大梵天을 지칭하는 예가 많다.

이 梵天이 처음 成道한 佛陀에게 轉法輪을 勸請하였다는 것과 梵天王이 娑婆世界主라는 것을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sup>109)</sup> 梵天 역시 請法 護法の 佛敎天神으로서 많은 佛典에 보이고 있다. 특히 普曜經등에는 佛出生 직전에 天帝釋梵四王이 母后를 翼從하여 四天王이 母后의 수레를 끌고 天帝釋이 道路를 淨治하고 梵天王이 그 앞을 서서 引道한다<sup>110)</sup>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經典의 여러 곳에서 護法奉佛의 天神으로서 釋梵四王 또는 釋梵護世라 하여 天帝釋과 梵天王과 四天王이 並稱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sup>111)</sup>

梵天은 色界天이므로 欲界天인 忉利天보다는 훨씬 上位에 있는 하늘이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釋梵四王이라고 하여 帝釋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梵天이 일컬어지고 있다. 아마 護法奉佛의 善神으로서는 梵天보다도 오히려 帝釋의 비중이 더 컸던 것 같다 하겠다.

그러한 梵天王이 皇龍寺의 護法龍으로 하여금 佛法道場을 守護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 慶州 石窟庵의 窟室內 入口쪽 좌우에는 天帝釋과 梵天왕의 立像이 각각 安置되어 있는데, 그로 미루어 新羅에서는 經說에 있는 바와 같이 梵天王을 帝釋과 아울러 護法の 善天으로 信仰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5) 辯才天女

앞의 史例 (4)의 ①에서 본 것처럼 遺事의 朗智乘雲 普賢樹 條에 의하면, 歙良州(梁山) 阿曲縣의 靈鷲山 山靈(山主 즉 山神)이 辯才天女이며, 史例 (7)의 ①에 본 緣會逃名 文殊帖 條에는 그 辯才天女가 國王의 부름을 피하여 달아나는 高僧 緣會의 길 앞에 老婆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로하여금 절로 되돌아 가게 하므로써 國師가 되게하였다는 것이다.

辯才天女는 梵語 薩囉薩伐底 Sarasvatī의 번역으로서, 大辯才天 大辯才天神 大辯才天王 大聖辯才天神 大辯才功德天 大辯天 또는 音妙天 妙音樂天 美音天 辯天이라고도 한

109) 勸請法輪은 前揭註 81), 娑婆界主 梵天王은 前揭註 83).

110) 佛說普曜經 卷第2 欲生時三十二瑞品 第5(新修藏 第3卷 p.493 中·下)

111) 普曜經 및 撰集百緣經 卷第6(新修藏 第4卷 p.231 中)등.

다. 일찌기 印度에서는 五河地方의 河神으로 崇拜되었고 뒤에는 梵天의 妃가 된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 佛敎에서는 音樂과 辯才와 財福 및 智慧의 德이 있는 天女로 보이고 있다.

金光明最勝王經에는 大辯才天女品과 大辯才天女讚歎品에 각각 金光明最勝王經의 守護 및 讚歎者로서 辯才天女를 등장시키고 있다.<sup>112)</sup> 그리고 이 經에서는 辯才天女가 高山頂의 勝住處에 葺茅의 室中에서 살고 있다고 있으며,<sup>113)</sup> 또 勝妙의 辯才天女를 讚歎한 偈頌에는

閻羅의 만누나(長姊)로 나투어  
언제나 靑色 野蠶衣를 입고  
好醜의 容儀를 모두 갖추어  
眼目은 능히 보는 자를 멀게하며  
無量의 勝行은 世間을 초월하고 歸信하는 사람은 모두 攝受하며  
혹은 山巖의 深險處에 머물고 때로는 坎窟과 河邊에 살며  
혹은 大樹 諸叢林에 있으니 天女가 많이 이 가운데 의지해 머물고  
가령 山林 野人輩가 또한 항상 天女에게 供養하며  
孔雀의 깃으로 幡旗를 만들어 언제나 항상 세상을 守護한다.<sup>114)</sup>

라고 하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高山頂이나 山巖의 深險處에 머문다는 辯才天女이므로 山神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그와같은 辯才天女가 新羅의 法華靈場인 靈鷲山의 主神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法華常講의 朗智 法師를 도우고, 每讀蓮經 修普賢觀行의 高僧 緣會앞에 몸을 나누었던 것으로 전해져 있다 할 것이다.<sup>115)</sup>

#### (6) 其他 天神(淨居天衆·靜聖天王 등)

遺事 卷3 塔像의 臺山五萬眞身 條(史例 (6)의 ㉠에서 摘記)에는 五臺山에서 修道하였던 太子寶川이 淨居天衆으로부터 茶供養을 받았다는 것이 보인다. 즉 寶川의 修眞50年에 忉利天神이 三時聽法하고 淨居天衆이 烹茶供獻하였다는 것이다.

淨居天 Śuddhādivsa 은 色界 第4禪天의 第三(阿那舍)果를 證得한 聖者들이 生하는 다섯 하늘로서, 無煩天 無熱天 善現天 善見天 色究竟天을 가리키는데, 이 하늘들에는 오직 聖者만이 살고있으므로 5淨居天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佛所行讚에는 如來가 世에 出興(誕生)하자 淨居天이 歡喜하였다<sup>116)</sup>고 있으며, 또 太

112) 金光明最勝王經 卷第7 大辯才天女品 第15之1~ 卷第8 大辯才天女品 第15之2(新修藏 第16卷 p.434~438) 및 同經 卷第10 大辯才天女讚歎品 第30(上同 p.455)

113) 上同 卷第7 上同品(上同 p.436 上)

114) 上同 (上同 p.437 上)

115) 法華靈場으로서의 靈鷲山과 그 山神 辯才天女에 대하여 拙稿 '法華信仰의 傳來와 그 展開' Ⅲ의 2, 新羅 法華道場과 그 信仰의 特徵(韓國佛敎學 第3輯 p.34~37)에서 言及한 바가 있다.

116) 佛所行讚 卷第1 生品 第1(新修藏 第4卷 p.1 中)

子(悉達)가 出門遊觀할 때 淨居天이 老人과 病人과 死人으로 變化하여 太子로 하여금 人世의 無常을 느끼게 하였고,<sup>117)</sup> 또 淨居天은 太子의 出家를 도우기 위하여 諸伎(婁) 女들을 잠들게 하고 다시 關閉된 門을 직접 열어주었다는 것이다.<sup>118)</sup>

그와 같은 淨居天衆이 新羅의 修真道人(寶川)에게 茶를 다려 바쳤다는 것이다.

遺事 卷5 避隱의 包山二聖 條(史例 (10)의 ②에서 擧出)에 의하면 包山の 岳神이 靜聖天王이라는 것이다.

靜聖天王에 대하여서는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으나 天王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이 역시 天神임을 알 수가 있다. 특히 包山の 山神인 이 靜聖天王이 迦葉佛때에 迦葉佛의 付囑을 받고 이 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가 佛敎의 天神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天王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靜聖天王이 男性的인 神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梁山 靈鷲山の 山神이 天女라는 점에서 다 같은 山神이면서도 天王과 天女가 對照의이라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상에서 본 諸天들 외에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하늘이 祥瑞를 드리우며 또는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와 天聲樂이 들린다는 등의 事例들을 이미 앞의 史例項에서 본바가 있다. 그런데 그 경우들에는 다만 天 天花 天唱 天樂 혹은 天神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하늘을 가리킨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이 하늘들은 新羅인들이 佛敎의으로 理解하고 있었던 하늘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다. 즉 忉利天이나 四王天등 佛敎의 諸天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新羅 佛敎天神的 思想的 特殊性

新羅에서 信仰되어졌던 하늘은 이제 앞에서 대충 살펴 본 것처럼 兜率天 忉利天(天帝釋) 四天王 梵天王 辯才天女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밖에 淨居天衆과 靜聖天王的 이름이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 資料가 너무나 微微하므로 信仰되었는지의 여부조차 알기가 어렵다.

① 兜率天에 대한 信仰은 실은 兜率天 그 자체에의 信仰이라기 보다는 현재 그 곳에서 諸天衆을 위해 說法敎化하고 있는 當來下生 龍華樹下 成佛의 彌勒菩薩에 대한 信仰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보았다. 다시 말해서 新羅에서의 兜率天信仰은 天神信仰으로는 보기 어려운 彌勒信仰의 한 부분이며, 엄격히 말한다면 兜率天 그 자체에 대한 信仰은 없고 거기에 있는 彌勒을 信仰하였던 것 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兜率天이라는 하늘의 信仰이 아닌 彌勒信仰의 一面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經說에서도 그와 같이 兜率天 그 자체가 信仰對象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곳

117) 上同 厭患品 第3(上同 p.5 下~6 中)

118) 上同 出城品 第5(上同 p.8 下~10 上)

이 一生補處菩薩의 住處이기 때문에 현재 그 곳에서 說法教化하고 있는 彌勒菩薩을 信仰의 對象으로 삼겠끔 되어있다. 그런 점에서는 新羅에서의 兜率天 彌勒信仰도 經說과 부합된다 하겠다. 그러나 彌勒上生經을 중심으로하는 彌勒住處의 兜率天 上生信仰으로서 新羅에 보이지 않는 점에서 新羅의 兜率天(彌勒)信仰이 經說 그대로를 받아들였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 할 것이다. 특히 現傳資料(주로 三國遺事)를 통해서 볼 수 있는 新羅에서의 兜率(彌勒)信仰은 死後 生天의인 上生信仰으로서가 아닌 現實的인 新羅爲主의 信仰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땅에서 兜率天으로 上生할려는 것이 아니고 兜率天에 있는 彌勒菩薩을 新羅의 彌勒으로 모셔와서 新羅를 더욱 福되게 하려고 하였다 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眞智王代의 眞慈스님은 彌勒大聖(菩薩)으로 하여금 직접 이 땅의 花郎으로 되어(化作해)주기를 祈願하였고, 緣僧 月明은 兜率天에 있는 彌勒을 향해 結(寺)法堂의 탁자위에 모셔앉힌 大聖에게 하듯 散花供養을 올리고 日怪消滅을 祈禱하였으며, 懇求懺悔의 修道者 眞表는 직접 彌勒으로부터 戒法을 받고자 勤修精進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과연 眞慈는 彌勒仙花(彌勒菩薩이 직접 化作한 花郎) 末尸郎을 만나 王에게 데리고 가서 國仙으로 받들게 하였고, 月明의 散花功德으로 日怪가 消滅되고 彌勒은 童子의 몸을 나투어 이 땅에 常住現顯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또 眞表는 兜率天來의 擁衛를 받으며 下降하는 彌勒菩薩을 목격하였고 그 彌勒에게 戒法을 직접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극히 現實爲主의인 新羅佛敎의 信仰思想을 볼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彌勒을 新羅 땅의 彌勒으로 모셔내리려고 하였으므로 一生 補處菩薩이 住하기에 가장 알맞다는 兜率天까지도 32萬(또는 3億 2萬)由旬높이에 있는 欲界 第4天에서 부터 이 땅 新羅로 끌어내리려 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것처럼 現實爲主의인 新羅의 佛敎人들이었으므로 欲界 4天인 兜率天 그 자체보다는 오직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彌勒을 信仰對象으로 삼았으리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② 天帝釋(忉利天)이 佛典에서는 모든 하늘(天·天神)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있으며 그 經說上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큰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현상은 新羅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다 할 것이다.

護法天神으로 가장 強力하고 權威가 있는 護世間의 佛敎善神인 天帝釋이 佛敎國 新羅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는데, 특히 新羅에서는 眞平王 때부터 그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물론 天帝釋은 護法天神이기 때문에 佛法의 傳來와 더불어 알려지고 또 護法護世의 善神으로서 받아들여졌겠지만, 新羅의인 特殊性을 보여주고 있는 現存資料로는 眞平王 때로부터 비로소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眞平王이 帝釋寺(內帝釋宮)를 세웠다는 것만으로서는 新羅의인 特殊性을 찾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으니, 百濟 武王(600~641)이 帝釋寺(精舍)를 세웠다는 사실<sup>119)</sup>을 미루어서 당시 三國(高句麗까지도 포함)이 모두 帝釋寺를 세워 佛法을 擁衛하고 國家를 鎮護케 하였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기 때문이다. 보다는 우리가 天帝釋에 대한 新羅의인 特殊性을 볼 수 있는 것은 天賜玉帶에 얽힌 사연이라고 할 것이다.

新羅의 歷代 諸王이 모두 郊廟大祀에 착용하였으며 新羅三寶의 하나였다는 玉帶를 眞平王이 天帝로부터 받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新羅 特有의 天神(帝釋)思想을 볼 수가 있다. 新羅佛敎는 극히 現實的이고 新羅爲主의 本位的思想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帝釋을 經說이나 信仰上의 天神으로만 觀念的인 하늘 위에 올려놓고 보려하였던 것이 아니고, 新羅의 天神으로 끌어와서 佛國으로서의 新羅를 守護하는 現實的인 이땅 新羅의 鎮護天神으로 삼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帝釋이 新羅에 天使를 내려보내어 帝王의 權威와 尊嚴性을 상징하는 玉帶를 전하여 護國의 寶物이 되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物證的으로 現實的인 新羅守護天神으로서의 帝釋天帝를 事實化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三國統一의 聖將 金庾信이 그곳 帝釋天(곧 三十三天)의 한 아들(一子)로서 新羅에 태어났으며, 死後에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天神이 되어 新羅를 守護한다고 믿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만큼 新羅에서는 天帝釋을 新羅守護神으로 固着시켰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景德王이 分外의 王子를 求하였을 때 그 請을 들어 주기는 하였으나 天帝는 天上과 人間界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서로간의 秩序를 어지럽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여 天上과 下界와의 通路를 遮斷하므로써, 다시 天帝釋은 新羅와는 멀리 떨어진 하늘의 위치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그뒤 惠恭王代로부터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國運이 沈滯하여 衰微해졌던 것은 守護神인 天帝釋이 新羅와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렇게 본다면 新羅末 景明王 5年(921)에 帝釋이 興輪寺 左經樓에 내려와 10日동안 머물면서 火災를 입은 興輪寺의 南門과 左右廊廡를 重修하도록 도왔다는 이야기는 帝釋이 아직 新羅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하겠다. 그러나 帝釋이 興輪寺經樓에 머물어 한 절의 重修만을 도우고 하늘로 되돌아갔다는 것에서, 帝釋이 新羅의 興輪寺 重修佛事만을 도왔을뿐 國家의 어지러움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帝釋은 護法善神으로서의 護法(비록 興輪寺 南門과 廊廡의 重修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였던 것은 아니었으나 護國天神으로서의 위

119) 觀世音應驗記(牧田諦亮著 '六朝古逸 觀世音應驗記의 研究' p. 58)

“百濟武廣王 遷都枳慕蜜地 新營精舍 以貞觀13年歲次己亥(百濟武王 40年 639) 多11月 天大雷雨 遂災帝釋精舍……”

치만은 新羅에서 끝내 외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것이다.

이는 또한 正法을 행하는 王을 天神이 守護하고,<sup>120)</sup> 國人이 惡業을 짓고 王이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三十三天衆(初利天神)이 모두 忿怒하게 된다<sup>121)</sup>는 그 因果應報觀을 新羅인들이 철저하게 믿었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國人的 佛法信奉이 祈福이나 形儀的 慣習에 치우치고 國王이 正法治化를 하지 않았으므로 나라가 어지러워진 新羅에 天帝釋의 擁護加被가 없었다는 것 역시 佛教思想의 現實的理解와 그 適應의 一面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③ 天帝釋의 鎮王으로서 人間世의 모든 衆生들이 행하는 善惡등 一切行을 낱낱이 洞察分別하여 天帝에게 報告한다는 四天王이므로 으레 帝釋이 信仰되면 따라다니게 마련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新羅에서 帝釋과 아울러 四天王이 護法護國의 善神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더우기 神印法의 補佐 衛護의 神인 四天神王을 統一新羅의 護國神으로 四天王寺(道場)에 坐定시킨 것 또한 天神思想의 現實性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音樂과 辯才와 財福과 智慧의 德을 갖추고 있다는 天女神인 辯才天女를 新羅에서는 한 산(靈鷲山)의 主神으로 삼았으며, 包山の 山神을 迦葉佛로부터 付囑받은 靜聖天王이라고 보았다는 것을 통하여서도 現實的인 新羅佛國土思想의 一面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新羅가 佛國이기 때문에 梵天王도 護法龍으로 하여금 奉佛道場(皇龍寺)을 지키게 하였고, 淨居天衆도 내려와 修道人에게 茶供養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新羅이므로 天花가 내려오고 하늘이 端祥을 보이며, 四面에 四方如來를 새긴 大石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破裂된 大石龕蓋를 天神이 내려와 온전하게 만들어 놓았으며(金大城의 石窟庵 創建時), 하늘에서 의치는 소리(天唱聲)를 들려주어 善事(布施한 貧女之兒 大城이 國宰 金文亮家에 태어난다는 사실, 善行의 沙門正秀를 國師로 삼게한 일 등)를 알려주었고, 억울한 王居仁의 訴詩에 하늘은 그의 獄囚를 벗어나게 하였으며, 또 산 목숨을 많이 해친 호랑이(金現感虎條)와 自意로 行雨한 龍子(寶壞梨木條)를 하늘이 벌하기도 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 이 또한 新羅가 佛緣國이기 때문에 항상 天神이 떠나지 않고 擁護하고 있다는 現實的 佛國思想의 한 면을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120) 諸法集要經 卷第10 王者治國品 第35(新修藏 第17卷 p.515 下)

“若王行正法하고 臣佐悉清淨하여 善調伏諸根하면 得諸天守護하리라”

121) 金光明最勝王經 卷第8 王法正論品第20(新修藏 第16卷 p.442 中)

“……三十三天主 分力助人王……”

國人造惡業 王捨不禁制 斯非順正理 治擯當如法 若見惡不遮 非法便滋長 遂令王國內 姦詐日增多 王見國中 人造惡不遮止 三十三天衆 咸生忿怒心 因此損國政 僞諂行世間 被他怨敵侵 破壞其國土”

④ 佛教에 있어서의 天神信仰은 天神信仰 그 自體를 別立시켜서는 볼 수가 없고 오직 佛法信奉과 결부시켜야만 그 存立이 가능하다. 佛教의 天神은 佛法을 守護하고 奉請聽法하며 佛教弘布를 도우고 世間的 善을 增長토록 擁護하는 護法奉佛의 善神이기 때문에 佛敎를 떠나서는 그 存在意義가 없다는 것이다. 즉 佛教의 天神은 佛法에 隸屬되어있는 神이므로 信仰에 있어서 獨自性이 缺如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佛教에서 天神은 그 獨自의 信仰이 불가능하고 오직 佛教의 信仰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그 信仰의 存立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佛教的 天神은 佛教信仰의 範疇안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 信仰의 性格의 獨自性이 없다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佛教信仰에 따라서 그 存否가 정해지므로 天神信仰의 性格과 形態도 佛教信仰의 與否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新羅에서의 天神信仰 역시 新羅佛教의 特殊性에 의하여 그 性格이 정하여졌다고 할 것이다.

즉 新羅의 佛教思想이 적극적이고 現實爲主的이었으므로 그 天神信仰思想도 적극적이고 現實爲主的이었으며, 新羅의 佛教가 本位的 佛國土思想을 확립하였기 때문에 天神信仰 또한 그와 같이 本位的佛國思想에 의한 信仰思想의 一面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新羅에서의 佛教天神思想은 당시 新羅의 佛教思想이 지닌 바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도 現實的이며 新羅爲主의 本位的인 信仰思想의 特殊性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 結 語

이상에서 우리는 三國遺事 所傳을 중심으로 하여 新羅佛教天神의 全般에 걸쳐서 그 대충을 살펴보았다.

佛教에 있어서 天神은 護法奉佛 勸善護世의 善神이라는 意義를 지니고 있을 따름이므로, 佛教人에게 있어서는 天神이 全能 絕對의 存在일 수도 없고 信仰의 對象도 될 수가 없다. 다만 佛法 守護神으로서 또는 修道人과 信佛者및 諸般佛事를 保佑擁衛하는 神이기 때문에 佛寺道場에 配列安置하여 道場守護와 佛事冥助및 善法增長을 冀求할 뿐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佛教에서는 天神을 全能主宰의 絕對者나 信仰對象으로는 받들지 않고 오직 護法奉佛의 神들(八部神衆 또는 護法八部衆)<sup>122)</sup>중에서 가장 威力있는 神으로서만 待遇하고 있을 뿐이므로, 天神信仰이라고 해도 獨自性을 지닌 信仰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佛教信仰속에 隸屬되어있는 한 부분의 信仰現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新羅에서도 그와같은 天神信仰形態를 보여주고 있다. 新羅 佛教人들이 天神을 信仰

122) 八部衆 또는 天龍八部라고도 하며 天龍 夜叉 乾闥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伽 등인데 經典과 譯本에 따라 表記나 名稱上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對象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며, 護法 護國神으로서의 天神이 항상 新羅를 擁護하고 있다고 믿었었다. 그리고 新羅에 있어서의 天神觀은 철저한 新羅爲主의 本位的 佛國思想에서 結果된 것이었다.

新羅는 佛緣이 두터운 佛敎國 즉 佛國이므로 天神이 항상 이 땅의 佛法과 國土를 擁衛守護한다고 믿었으며, 그것을 現實的으로 物證까지 들어서 事實化시키기도 하였었다. 특히 우리의 注目을 끄는 흥미로운 문제는 新羅의 佛敎가 盛하고 또 民族統一의 大業을 이룩한 그 전후의 國運興昌時에는 天帝釋을 비롯한 諸天神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타나 보이고 있는데, 그 반면에 國運이 沈滯해진 이후의 混亂期에는 것처럼 적극적인 모습을 보기가 힘든다는 점이다. 이는 王이 正法으로 治化하고 國人이 衆善을 奉行하면 天神이 항상 擁護하며 王政이 어지럽고 國人이 不善하면 天神이 忿怒하여 돌아보지 않는다는 經說과 너무나 부합되어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新羅人들은 經說그대로의 天神觀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들 나름의 독특한 創意性을 보여주고 있다할 것이니, 그것은 天神을 經說上의 存在로만 믿지 않고 新羅爲主로 끌어와서 新羅의 天神으로 삼으려하였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新羅는 諸佛菩薩 常住의 佛國이기 때문에 天神이 常擁護하여 興法과 興國을 冥資保祐한다는 것을 事實化시켜서 現實的인 新羅中心의 本位的 天神觀을 보여주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할 것이다.